

공화국의 위용과 기상안고 내려키는 천리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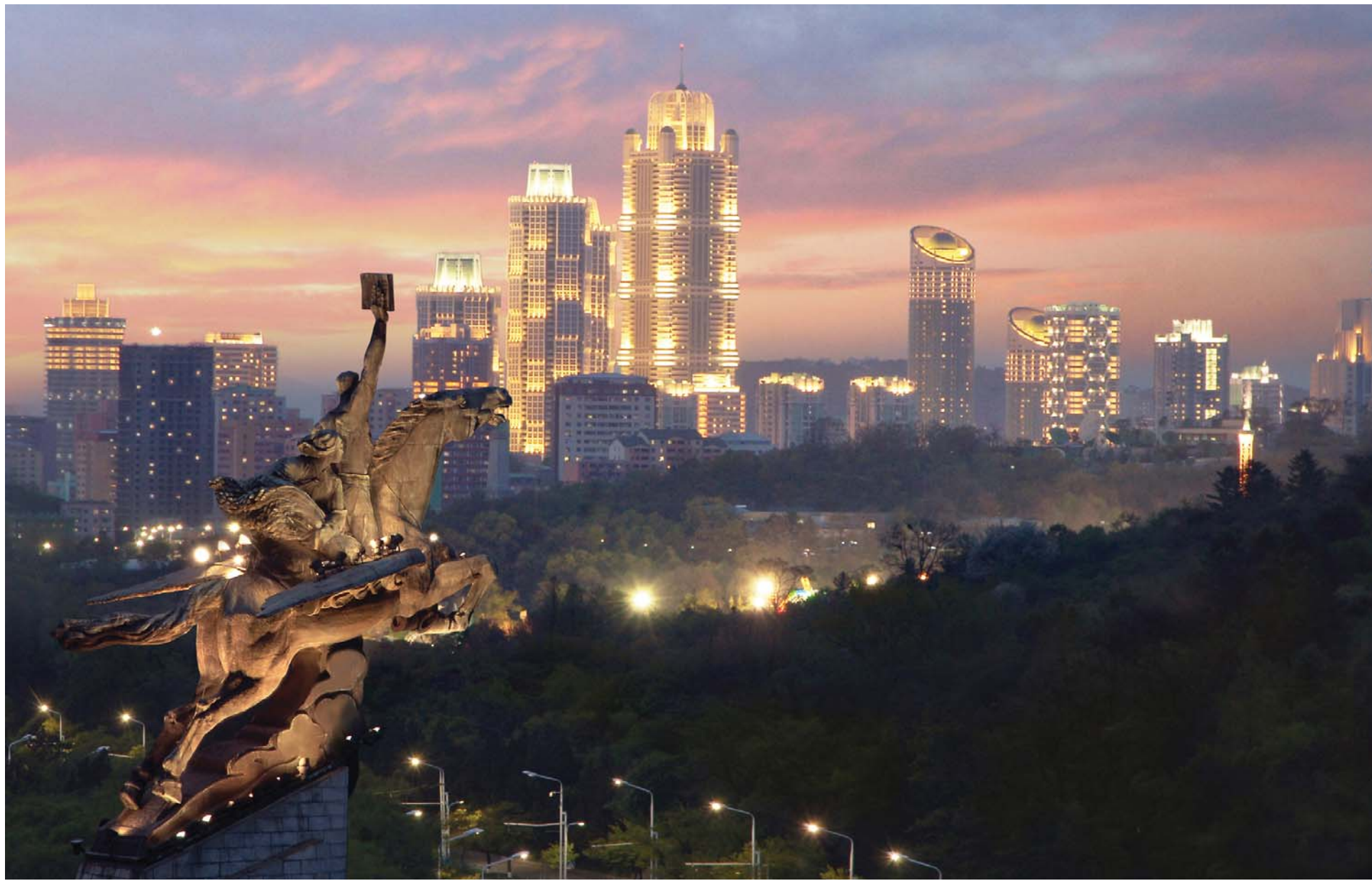
평양의 만수대언덕에는 낮이 나 밤이나 네굽을 안고 하늘 높이 나는 천리마를 형상한 동상이 있다.

비상히 빠른 속도를 상징하는 전설속의 천리마를 몰아가는 기수는 바로 공화국의 근로자들이다.

세상에는 당대의 개별적영웅을 찬미하는 기마상들이 수없이 많지만 조선의 천리마동상처럼 근로인민대중을 주인공으로 형상한 기마상은 없다.

천리마동상에는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변혁으로 가슴벅찼던 천리마시대의 눈부신 모습이 있고 존엄한 도전과 역경속에서도 래일의 승리에 대한 신념과 락관에 넘쳐 험하게 나아가는 조선의 역센 기상이 비껴있다.

조선의 천리마, 이것은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끊임없이 상승비약하며 세계의 창공높이 무섭게 솟구쳐오르는 조선의 약동하는 기상이며 기적과 변혁으로 증된 사회주의조선의 신화의 상징이다.



세기적인 변혁을 안아온 조선의 천리마

주체50(1961)년 4월 15일 평양의 모란봉기슭에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49돛에 즈음하여 천리마동상제작식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온 나라 인민이 드리는 축원의 인사를 받으셔야 할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천리마동상제작식장에 나오시어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붉은 테프를 꿇으셨었다.

당중앙의 붉은 편지를 추켜든 남성로동자와 풍요한 벼단을 한 아름 안고있는 여성농민을 태우고 구름을 박차며 날아오르는 천리마의 기세찬 모습...

천리마동상을 올려다보고 또 올려다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천리마동상을 조각한 동무들은 다 영웅들이라고, 이 천리마동상은 조각도 잘하였지만 우리의 위력을 시위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시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천리마가 뭐냐고 하는데 이제야 바로 이거다라고 말할수 있게 되었다고 교시하시었다.

날개를 펼치고 하늘을 기운차게 나는 조선의 천리마.

전설속의 천리마를 불러내어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하는 영웅 조선의 상징으로 되게 해주신분은 위대한 수령님이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956년 12월전원회의가 있는 다음 강선제강소(당시)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는 날이 한발자국을 걸으면 열발자국을 걷고 날이 열발자국을 뛰면 백발자국을 뛰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동무들이 다음해에 강제를 계획보다 1만만 더 생산하면 나라가 허리를 펴수 있다고 절절히 교시하시었다.

그이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은 강선의 로동계급은 공청능력, 기술신비주의를 라파하고 다음해에 6만능력의 분피암연기에서 12만의 강편을 뽑아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이곳에서 타고온 천리마대교조의 불길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으로 거세차게 라번져졌다. 기계공업부문의 로동자들은 당시로서는 발전된 몇개의 공업 국가들만이 만들수 있던 프락트르를 30여일만에, 자동차를 40일만에, 전기기관차를 1년동안에 만들어냈으며 8m라닝반과 300t프레스, 대형양수기와 굴착기, 불도젤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하여 세상을 놀래웠다. 이러한 속에 7 000세대분의 자재와 자금, 로력으로 단 한해사이에 2만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고 3~4년이 걸려야 할수 있는 해추-하성사이의 철길부설공사를 단 75일동안에 해제것을 비롯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적적인 성과들이 연이어 이룩되었다.

평양에 와서 1주일간 묵어간 한 외국인이 도착한 날 살림집 1층 벽체조립장면을 사진찍었는데 귀국할 때에는 7층조립까지 끝난 모습을 찍어가지고 간것도 천리마대교조시기에 있는 일이었다. 이 해추-하성사이의 철길부설공사는 위대한 수령님이시었다. 그는 1703년에 그곳 전철에다 도시를 세우라고 명령하고 건설을 직접 지휘한 황제요. 사람들은 청동말을 탄 거인의 조각상을 보면서 아하 이 사람이 옛날의 그 유명한 짜리로구나 하고 생각하지.

우리가 오늘 이 천리마에 한 사람을 앉혀놓으면 먼 후대들은 말우에 앉은 사람이 당대를 대표하는 어떤 개별적인 영웅이라고 생각할지. 그들은 아마 그때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수상을 했으니 이걸 그 사람의 동상이 아닌가고 생각할수도 있단 말이요. 그러니 동무들, 생각해보시오. 지금이야 인민의 시대가 아닌가. 이걸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세우는 기마상이요. 인민의 모습을 새겨놓은 사람도, 천리마의 주인들이 어떤 개별적영웅이 아니라 인민이라는 위대한 수령님이시었다.

평양의 만수대언덕에 세워진 천리마동상은 형상하려고 하였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각가들에게 이렇게 교시하시었다. 나는 1949년에 레닌그라드에 가서 프트르제제의 기마상을 보

대표하는 탁월한 정치가, 위인중의 위인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그의 빛나는 예지와 안광, 비범출중한 담력과 배짱, 천하를 품으시는 바다같이 넓은 도량과 뜨거운 인덕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지니보지 못한것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은 자신께서 지니신 그 탁월하고 비범무쌍한 모든것을 인민에게, 자신의 아들 딸들에게 높이는 숭결로, 열정적인 심장의 박동으로, 뿜어버지는 붉은 피로, 백두의 웅지와도 같은 원대한 리상과 포부로 안겨 주시었다. 그래서 인민은 령도자를 따르며 그리도 슬기롭고 강인하고 아름답고 굳세었으며 허리를 조이면서도 휘황한 미래를 내다보는 불굴의 락관주의자들, 자신보다 남을, 하나보다 전체를, 가정보다 조국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로, 위대한 수령님이시었다.

우리가 오늘 이 천리마에 한 사람을 앉혀놓으면 먼 후대들은 말우에 앉은 사람이 당대를 대표하는 어떤 개별적인 영웅이라고 생각할지. 그들은 아마 그때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수상을 했으니 이걸 그 사람의 동상이 아닌가고 생각할수도 있단 말이요. 그러니 동무들, 생각해보시오. 지금이야 인민의 시대가 아닌가. 이걸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세우는 기마상이요. 인민의 모습을 새겨놓은 사람도, 천리마의 주인들이 어떤 개별적영웅이 아니라 인민이라는 위대한 수령님이시었다.

평양에 와서 1주일간 묵어간 한 외국인이 도착한 날 살림집 1층 벽체조립장면을 사진찍었는데 귀국할 때에는 7층조립까지 끝난 모습을 찍어가지고 간것도 천리마대교조시기에 있는 일이었다. 이 해추-하성사이의 철길부설공사는 위대한 수령님이시었다. 그는 1703년에 그곳 전철에다 도시를 세우라고 명령하고 건설을 직접 지휘한 황제요. 사람들은 청동말을 탄 거인의 조각상을 보면서 아하 이 사람이 옛날의 그 유명한 짜리로구나 하고 생각하지.

우리가 오늘 이 천리마에 한 사람을 앉혀놓으면 먼 후대들은 말우에 앉은 사람이 당대를 대표하는 어떤 개별적인 영웅이라고 생각할지. 그들은 아마 그때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수상을 했으니 이걸 그 사람의 동상이 아닌가고 생각할수도 있단 말이요. 그러니 동무들, 생각해보시오. 지금이야 인민의 시대가 아닌가. 이걸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세우는 기마상이요. 인민의 모습을 새겨놓은 사람도, 천리마의 주인들이 어떤 개별적영웅이 아니라 인민이라는 위대한 수령님이시었다.

우리가 오늘 이 천리마에 한 사람을 앉혀놓으면 먼 후대들은 말우에 앉은 사람이 당대를 대표하는 어떤 개별적인 영웅이라고 생각할지. 그들은 아마 그때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수상을 했으니 이걸 그 사람의 동상이 아닌가고 생각할수도 있단 말이요. 그러니 동무들, 생각해보시오. 지금이야 인민의 시대가 아닌가. 이걸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세우는 기마상이요. 인민의 모습을 새겨놓은 사람도, 천리마의 주인들이 어떤 개별적영웅이 아니라 인민이라는 위대한 수령님이시었다.

우리가 오늘 이 천리마에 한 사람을 앉혀놓으면 먼 후대들은 말우에 앉은 사람이 당대를 대표하는 어떤 개별적인 영웅이라고 생각할지. 그들은 아마 그때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수상을 했으니 이걸 그 사람의 동상이 아닌가고 생각할수도 있단 말이요. 그러니 동무들, 생각해보시오. 지금이야 인민의 시대가 아닌가. 이걸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세우는 기마상이요. 인민의 모습을 새겨놓은 사람도, 천리마의 주인들이 어떤 개별적영웅이 아니라 인민이라는 위대한 수령님이시었다.

는 인간을 사랑할줄 알아야 한다고 하시던 그날의 다정하신 말씀은 인간개조의 선구자들을 무수히 키워냈고 혁명을 하자면 대담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며 힘과 고무를 주시던 아버지의 가르치심은 수천수만의 자력갱생의 선구자들을 이 땅우에 탄생 시키었다.

하기에 현대기계공업과 전기공업의 정수를 이룬다는 전기기관차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만들어낸 기적을 안아온 한 체형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참으로 신비할 정도로 이상스러운것은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대로만 하면 산악같이 보이던것도 주먹만큼 되어보이고 무엇이든 척척 만들어낼수 있게 되는 그것입니다.》

이렇게 인민은 자랐고 장엄한 령도의 정수는 탄생하였다. 이 땅우에 사회적변혁과 승리만을 안아온 천리마의 정신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령도아래 세기와 년대를 이어 더욱 빛을 뿌리었다. 조국이 어려운 시련에 처했던 고난의 행군시기 몸소 자강당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께서 해방직후와 전후복구 건설의 어려운 시기에 강선을 찾으시고 혁명대교조를 일으키도록 전국에 내세우신것처럼 강편

을 하는 오늘에 와서는 강계시를 내세우자고 한다시며 자강도의 로동계급이 혁명대교조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새로운 천리마정신-강계정신을 창조하도록 이끌어 주시었다. 아버지의 가르치심은 수천수만의 자력갱생의 선구자들을 이 땅우에 탄생 시키었다.

이렇게 인민은 자랐고 장엄한 령도의 정수는 탄생하였다. 이 땅우에 사회적변혁과 승리만을 안아온 천리마의 정신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령도아래 세기와 년대를 이어 더욱 빛을 뿌리었다. 조국이 어려운 시련에 처했던 고난의 행군시기 몸소 자강당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께서 해방직후와 전후복구 건설의 어려운 시기에 강선을 찾으시고 혁명대교조를 일으키도록 전국에 내세우신것처럼 강편

을 하는 오늘에 와서는 강계시를 내세우자고 한다시며 자강도의 로동계급이 혁명대교조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새로운 천리마정신-강계정신을 창조하도록 이끌어 주시었다. 아버지의 가르치심은 수천수만의 자력갱생의 선구자들을 이 땅우에 탄생 시키었다.

을 하는 오늘에 와서는 강계시를 내세우자고 한다시며 자강도의 로동계급이 혁명대교조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새로운 천리마정신-강계정신을 창조하도록 이끌어 주시었다. 아버지의 가르치심은 수천수만의 자력갱생의 선구자들을 이 땅우에 탄생 시키었다.

는 인간을 사랑할줄 알아야 한다고 하시던 그날의 다정하신 말씀은 인간개조의 선구자들을 무수히 키워냈고 혁명을 하자면 대담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며 힘과 고무를 주시던 아버지의 가르치심은 수천수만의 자력갱생의 선구자들을 이 땅우에 탄생 시키었다.

이렇게 인민은 자랐고 장엄한 령도의 정수는 탄생하였다. 이 땅우에 사회적변혁과 승리만을 안아온 천리마의 정신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령도아래 세기와 년대를 이어 더욱 빛을 뿌리었다. 조국이 어려운 시련에 처했던 고난의 행군시기 몸소 자강당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께서 해방직후와 전후복구 건설의 어려운 시기에 강선을 찾으시고 혁명대교조를 일으키도록 전국에 내세우신것처럼 강편

을 하는 오늘에 와서는 강계시를 내세우자고 한다시며 자강도의 로동계급이 혁명대교조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새로운 천리마정신-강계정신을 창조하도록 이끌어 주시었다. 아버지의 가르치심은 수천수만의 자력갱생의 선구자들을 이 땅우에 탄생 시키었다.

이렇게 인민은 자랐고 장엄한 령도의 정수는 탄생하였다. 이 땅우에 사회적변혁과 승리만을 안아온 천리마의 정신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령도아래 세기와 년대를 이어 더욱 빛을 뿌리었다. 조국이 어려운 시련에 처했던 고난의 행군시기 몸소 자강당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께서 해방직후와 전후복구 건설의 어려운 시기에 강선을 찾으시고 혁명대교조를 일으키도록 전국에 내세우신것처럼 강편

을 하는 오늘에 와서는 강계시를 내세우자고 한다시며 자강도의 로동계급이 혁명대교조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새로운 천리마정신-강계정신을 창조하도록 이끌어 주시었다. 아버지의 가르치심은 수천수만의 자력갱생의 선구자들을 이 땅우에 탄생 시키었다.

이렇게 인민은 자랐고 장엄한 령도의 정수는 탄생하였다. 이 땅우에 사회적변혁과 승리만을 안아온 천리마의 정신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령도아래 세기와 년대를 이어 더욱 빛을 뿌리었다. 조국이 어려운 시련에 처했던 고난의 행군시기 몸소 자강당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께서 해방직후와 전후복구 건설의 어려운 시기에 강선을 찾으시고 혁명대교조를 일으키도록 전국에 내세우신것처럼 강편

을 하는 오늘에 와서는 강계시를 내세우자고 한다시며 자강도의 로동계급이 혁명대교조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새로운 천리마정신-강계정신을 창조하도록 이끌어 주시었다. 아버지의 가르치심은 수천수만의 자력갱생의 선구자들을 이 땅우에 탄생 시키었다.

은 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주력거리, 미배과학자거리, 려명거리, 송화거리, 경루동, 화성지구 1단계 1만세대 살림집들, 삼지연시를 비롯하여 도처에 일떠서는 사회주의신경마들, 종평과 련포의 대규모온실농장 등이 땅에 솟아난 기념비적창조물들과 사회주의위력을 과시하는 변혁적실체들은 새로운 천리마속도에 부흥강국의 찬란한 래일을 앞당겨오는 사회주의조선의 참모습이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위대한 성과들과 기적들을 최고의 속도로!

과연 조선은 무슨 힘으로 이런 기적과 전설들을 세기를 이어가며 창조할수 있는가. 남들같은 열백년도 더 주저앉을 공화국인민을 천리마시대의 계승자들로 키우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전군길에 공화국인민들을 내세워주시면서 이제부터 우리는 그야말로 빠른 속도로 달려나가야 한다고,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강국건설구상을 년대별로 실현해나갈것이 아니라 년대와 년대를 뛰어넘어 비약하면서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며 천만의 심장마다 천리마시대의 정신과 넋을 심어주시었다.

경애하는 그이의 빛나는 예지와 탁월한 령도의 손길아래 이 땅에서는 1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천지개벽의 새 령도가 펼쳐지고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가 열리었다.

철세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고 그이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는 훌륭한 인민이 있어 조선의 천리마는 공산주의의 찬란한 래일을 향해 온 세상을 끌어모으며 더 높이, 더 빨리, 더 용기백배해 날고있다.

본사기자 김감철

더 높이, 더 빨리 날으는 오늘의 천리마

세인의 경탄속에 날아올랐던 조선의 천리마는 오늘 더 높이, 더 빨리 날고있다.

돌이켜보면 공화국인민이 걸어온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자욱 자욱은 미증유의 시련과 난관들을 뚫고헤쳐야 했던 준엄한 나날들이었다. 그러나 공화국인민은 쓰러지지도 주저앉지도 않았으며 나약하게 남을 바라보지도 않았다. 오히려 세월을 주름잡는 천리마의 정신과 그 기상으로 강국건설사업의 계단들을 날아오르며 휘황한 미래의 언덕으로 질풍노도처럼

을 하는 오늘에 와서는 강계시를 내세우자고 한다시며 자강도의 로동계급이 혁명대교조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새로운 천리마정신-강계정신을 창조하도록 이끌어 주시었다. 아버지의 가르치심은 수천수만의 자력갱생의 선구자들을 이 땅우에 탄생 시키었다.

는 만고의 진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주먹이 약하면 그 주먹으로 눈물을 닦아야 한다는, 힘이 없으면 평화도 지킬수 없고 인간의 존엄과 자주적인 삶도 지킬수 없으며 이 땅의 풍요롭고 소중한 그 모든것을 빼앗기게 된다는것이다.

병진의 불우회를 터친 잊지 못할 3월의 그날로부터 지난 10년간 공화국의 절대적힘은 상상할 초월할 정도로 비상히 강화되었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이 제시된지 불과 3년만에 첫 수소탄시험에서

을 하는 오늘에 와서는 강계시를 내세우자고 한다시며 자강도의 로동계급이 혁명대교조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새로운 천리마정신-강계정신을 창조하도록 이끌어 주시었다. 아버지의 가르치심은 수천수만의 자력갱생의 선구자들을 이 땅우에 탄생 시키었다.

푸른 숲에 어린 애국의 세계

신록이 짙어가는 화창한 봄 계절 공화국의 산들에 푸른 숲 설레이고있다.

황금산, 보물산의 더욱 아름다운 레일을 예고하는가 아지마다에서는 푸른 일새 앞을 다투어 돌아나 자기의 푸르청청함을 자랑하며 이 나라 강산을 아름답게 변모시키고있다.

한해가 물라보게 거목으로 자라고있는 저 나무들은 어떻게 이 산천에 뿌리내리게 되었인가.

지금도 7년전 5월 14일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훌륭히 실현된 122호양묘장을 현지지도하시며 그리도 기뻐하시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환하신 영상을 사람들은 잊지 못하고있다.

이날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는 현대적인 양묘장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정확한 인식과 표상을 줄 수 있게 건설된 그곳을 돌아보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 양묘장의 본보기, 표준, 나라의 첫 양묘공장이 멋들어진 것일터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이보다 앞서 벌거벗은 산림을 그대로 두고 이제 더는 물러설 길이 없다고 하시면서 전후복구건설시기 온 나라가 떨쳐나 재더미를 털고 일떠선것처럼 산림복구를 자연과의 전쟁으로 간주하고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어 산림복구전투를 벌리자고 열렬히 호소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전체 인민을 산림복구에 로 불리일으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을 전방성있게 계획적으로 밀고나가기 위한 방향과 방도도 하나하나 제시하여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에서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

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지침을 밝혀주시는데 이어 인민군 군인들과 함께 친히 식수도 하시며 나무심기운동의 불길도 지퍼주시었다.

하루빨리 나라의 모든 산들을 푸른 숲 설레이는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드는데서 목표생선이 가지는 의의를 그 누구보다도 깊이 통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122호양묘장을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완벽하게 실현된 21세기 양묘장, 우리 나라 양묘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민시킴을 용대한 구상을 펼쳐주시었다.

초거울에 새차게 몰아치는 찬바람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양묘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종자처리, 싹틔우기, 영양관리, 생태환경보장, 병해충구제, 저장 등에 이르는 모든 나무모생산공정들을 고도로 현대화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문제들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양묘장개건을 빠른 시일내에 끝내도록 하시기 위해 설계로부터 자체보장, 건설력투입에 이르기까지 제기되는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그리고이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변모된 양묘장을

찾으시어서는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라붙어 립체전을 벌려 122호양묘장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양묘장으로 전변시킴으로써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선물로 드리자고 하였던 인민군대가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한치의 편협도 없이 완전무결하게 관철하였다고 군인건설자들을 높이 치하하시었다.

이날 그이께서는 양묘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온도, 습도, 해비침도, 탄산가스함량, 통풍량, 관수량, 영양액 시비량 등 나무모재배에 가장 적합한 조건과 환경을 보장할수 있도록 양묘장에 통합조종체계를 훌륭히 구축한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단일한 수준의 나무모를 키워내는 양묘장과는 달리 여러가지 수준의 나무모들을 동시에 생산하는 종합적인 양묘장에 통합조종체계를 구축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이것만 놓고 보아도 우리의 혁명적인 지식인들은 못하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년간생산량은 2000여만그루라고, 모든 도들에도 이 양묘장과 같은 토지절약형, 로력절약형양묘장을 건설하면 해에 2억그루의 나무모를 생

산할수 있을것이라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호호하다고 하시면서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된 조국강산의 레일을 그려보시었다.

산림복구전투의 강력한 병기창인 양묘장을 각 도들에 일떠세우실 의지를 안으시고 강령도양묘장에 이어 총평은 실농장과 함께 현대적인 양묘장을 일떠세우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각 도들과 군들에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는 양묘장들을 일떠세우기 위한 뒷바람을 일으키도록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의 귀중한 자원이며 후대들에게 물려줄 귀중한 재부인 산림조성과 보호관리를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어 하도록 하시고 찾으시는 곳마다에서 식수정형, 수림화, 원림화사업진행정형을 료해하시며 이 사업을 근기있게 밀고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느 한 인민군부대를 찾으신 그 날에는 지휘부와 주변산들을 뒤덮고있는 울창한 수림을 보시고 나무를 많이 심고 가꾸어주면, 나무들로 꽉 찼소, 기분이 정말 좋소라고 웃내 만족하시면서 병

영주변을 감싸고있는 나무들을 보기 좋게 잘 자라왔다고, 군인들의 뜨거운 애국심과 정성이 밀거름이 되었을것이라고 인민군 군인들의 수고를 헤아려주시었다.

또한 북방의 한 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어서는 돌격대원들이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침수지역 주민들을 위해 수백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였을뿐 아니라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는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양묘장을 꾸려놓고 나무심기를 대대적으로 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었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린 나무모를 심어 거목으로 자라우기까지는 많은 품을 들고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국의 산과 들에 땅과 열정을 바치며 여기에서 보람을 찾는 사람이 참된 애국자라고 말씀하시었다.

또한 식수사업에서 중요한것은 나무 몇대 심었는가 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몇대를 살렸는가 하는데 있다고 하시며 때로는 인민군 군인들과 또 언제인가는 만경대 혁명학원 원아들과 또 어느 해 봄날에는 조선로동당 제2차 초급당비서대회 참가자들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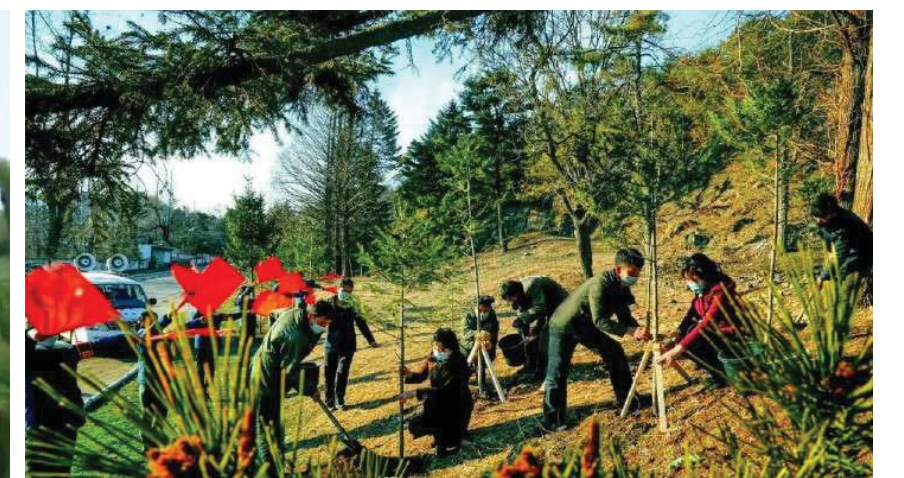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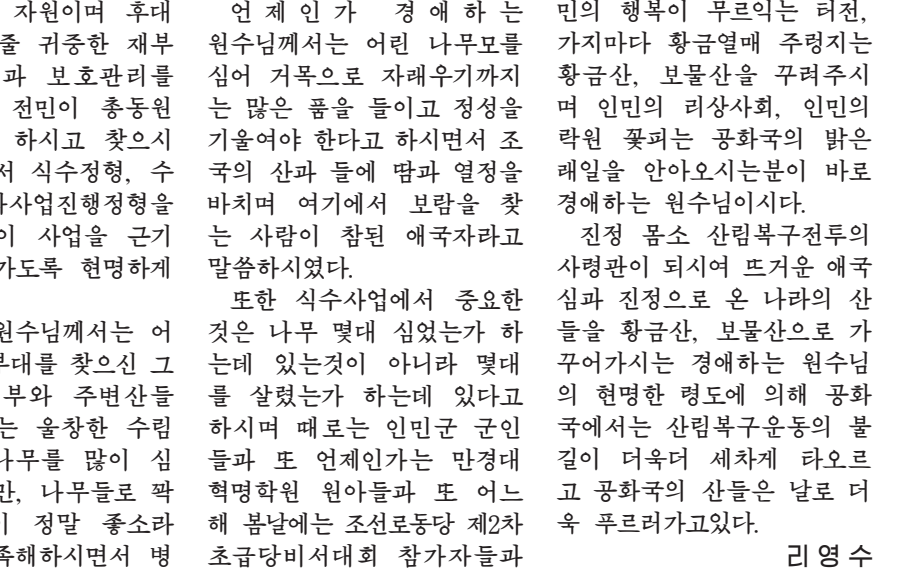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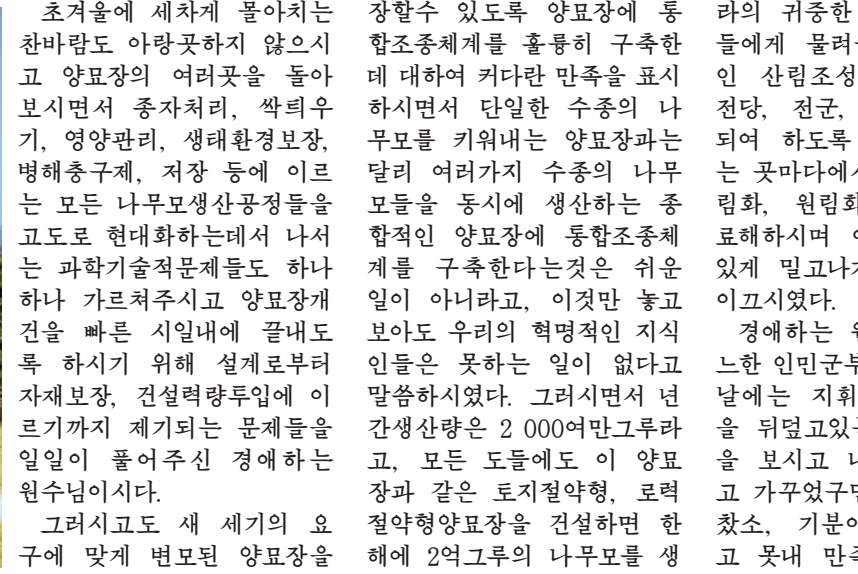
함께 친히 나무를 심으시며 온 나라 인민들에게 식수는 단순히 나무를 심는 사업이 아니라 당의 정책을 심고 뜨거운 애국심을 심으며 영원히 변색없을 순결한 랑심을 심는 중요한 사업임을 깊이 새겨주시었다.

이 땅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소중히 품어안아 자신의 후더운 가슴으로 덮혀주시는 절세의 애국자 경애하는 원수님.

후대들에게 푸른 숲 우거진 사회주의선경을 물려줄 그날을 확신하시기에 그이께서는 가요 《황금나무 늙나무 산에 심었소》를 사랑하시며 즐겨 부르곤 하시었다. 노래에도 있듯이 봄철에는 구름꽃 하얗게 피고 그속에서 아침저녁 즐겁게 노래하는 인민의 행복이 무르익는 터전, 가지마다 황금열매 주렁지는 황금산, 보물산을 꾸려주시며 인민의 리상사회, 인민의 락원 꽃피는 공화국의 밝은 레일을 안아오시는분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진정 몸소 산림복구전투의 사령관이 되시어 뜨거운 애국심과 진정으로 온 나라의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가꾸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공화국에서는 산림복구운동의 불길이 더욱더 새차게 타오르고 공화국의 산들은 날로 더욱 푸르러가고있다.

리영수



청년들이 들끓어 온 나라가 들끓는다

온 나라가 청년들로 들끓고있다.

올해 정초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청춘남녀들이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제7차전원회의소식에 접하고 중요공장, 기업소, 탄광과 농촌, 최전선설초소와 산골마을 학교, 사회주의대건설전투장으로 달려나갔다.

정든 고향과 일터, 사랑하는 부모형제와 동무들을 뒤에 두고 어렵고 힘든 곳으로 자진하여 진출하는 이런 청년들이 얼마나 미덥고 자랑스러우나.

오늘의 대진군에서 로력혁신자로, 창고안의 명수로, 아름다운 미풍의 소유자로 자랑떨치고 있는 사람들도, 조국방선을 철벽으로 지켜가는 병사들도, 세계의 창공높이 공화국기를 휘날릴것 야심만만한 투지를 안고 파라는 훈련을 이어가는 체육인들도 다름아닌 청년들이다.

지구상의 곳곳에서 수많은 청춘들이 속절없이 시들어가고 범죄의 나락으로 끌려떨어지고있을 때 조선의 청년들은 전세계들이 피담으로 일떠세운 사회주의제도에서 행복을 누리

만 하는 세대가 아니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삶의 순간순간을 위훈으로 빛내이려는 숭고하고 아름다운 인생관을 지니고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해 청춘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다.

세계가 부러워하고 격찬하는 청년강국의 존엄을 떨쳐주시는분은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다.

가정에서도 자식들을 잘 키워야 부모의 대를 옮겨 잇는것처럼 청년들을 잘 키워야 나라의 대, 혁명의 대가 굳건히 이어질수 있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론이다.

사회와 집단, 동지를 위하여 자기를 아낌없이 바치고 당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곳으로 탄원한 청년들, 잘못 살아온 지난날과 결별하고 새 출발을 한 청년들이 너무도 기특하고 대견하시어 넓은 품에 안아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미더운 청년들이 애국총정의 고귀한 피땀을 뿌리며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일떠세운 청춘대기념비인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찾으시어서는 우리 당은 확실히 북쪽의 가장 큰 복인 청년복이 있다고, 뜻깊은 이 자리에서 청년들을 진주보석처럼 아끼고 내세워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까지 합쳐 발전소건설에 참가하여 커다란 로력적위훈을 세운 백두산영웅청년들격대원들과 인민군 군인들, 전체 건설자들에게 조선로동당의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와 전투적 인사를 드린다고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청년들에 대한 절대적민심을 안으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설계도에 새 화살표를 그려나가고계신다.

지난 2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화국의 위상과 비약적인 발전상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게 될 평양시 서포지구의 새 거리건설을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과 백두산영웅청년들격대에 통채로 맡겨주시었다.

건설착공식에서 하신 격동적인 연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의 청년건설자들이 당과 조국의 부름에 물불을 가리지 않으며 혁명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는 조선청년다운 기질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수도평양의 북쪽관문에 세상을 놀래울 사회주의발전과 미래의 상징물들을 보란듯이 떠올리리라는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크나큰 믿음을 청년들에게 안겨주시었다.

보람차고 영예로운 건설과제가 청년들에게 통채로 맡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전국각지에서 10여만명의 청년들이 평양의 새 거리건설에 참가할 열의밑에 용약 탄원해나신것으로 하여 서포지구 새 거리건설장은 말 그대로 진원관, 대적전장으로 화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하루빨리 꽃피워 서포 지구에 또 하나의 인민을 위한 별천지를 펼쳐놓을 드림없는 맹세로 심장을 끓이던 청년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으로 하여 건설장에서는 새 거리의 아름다운 용자를 그려주며 시간이 다르게 살림집의 골조가 치솟고있다.

청년들의 모습에 오늘날 이 나라 먼 레일의 모습이 비친다.

인민들에게 존엄높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고 언제나 마음쓰시는 령도자의 뜻과 구상을 받들어 위대한 시대를 애국헌신으로 만들어나가고있는 이런 미더운 청년들이 많고많아 공화국은 강하고 미래가 밝은것이다.

본사기자 김철



시 초 사랑이 넘치는 곳에서 (2)

복을 주는 병원

그 누가 말했는가
이발은 오복중의 하나라고
그래서인지 찾아오는 사람들
누구나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다
류경치과병원은 복병원이라고

달리아 말하랴
정말 복을 안겨주는 병원이다
최신식의료설비를 모두 갖춰
우리 원수님 인민에게 안겨주시던
현대적인 류경치과병원

눈에 선히 어려어오느냐
.....

보배 병원

류경치과병원을 지나니
저 몇평이건물은 보배병원이란
속담에도 있지 않더냐
사람이 천양이면 눈은 팔백냥이라고

저도 모르게 마음이 끌려
류경안과종합병원 마당에 들어서니
때마침 환자가 퇴원하느냐
수십년만에 광명을 찾은 사람
꽃속에 묻혀 울고웃느냐

얼마나 보고싶었으랴
날마다 시간마다 변하는
내 조국의 최후의 꽃피워
마음껏 보고 거닐고싶었던 거리
가까운 혈육들의 정다운 얼굴

그 소원 그 꿈은

사랑의 거리는 끝나지 않는다

산천거리에 들어선 걸음
어느덧 거리의 끝에 이르렀건만
은혜로 사랑의 이야기
다하지 못한것만 같아
쉬이 걸음을 옮길수 없구나

다시 불러보노라
옥류아동병원과 평양산원이며
류경치과병원과 류경안과종합병원
인민의 무병무탈 간절히 바라는
절세위인들의 뜻이 켜친 인민의
병원들이여

정녕 사랑으로 시작되어
사랑으로 이어진 이 거리
끝에 이르렀다 이야기도 끝을
맺으랴
아니구나
사랑은 어느 거리에도 이어져 흐르
거니

대동강을 건 문수저리는
웃음소리 높은 문수물놀이장
어서 오라 나를 부르는듯싶어라
대학거리에 눈길을 돌리면

김영일

병을 고쳐주는 의사 있어 병원이건만
아니구나 이곳은
하늘같은 원수님의 뜨거운 은정이
인민에게 복으로 오는 행복의 집

인민을 위한 참 좋은 세상

이 좋은 제도에 솟아오른
사랑의 병원에서
내 터치는 가슴속격정이어
복이 넘치는 내 나라가 제일 좋더랴
원수님 모신 내 나라가 세상에
제일이야라

리치는 격정에 누구나 눈물을
.....

왜 이리도 가슴을 치는것인가
.....

눈이 보배라면
눈의 광명을 찾아준 사랑은
무엇이라 노래해야 하는것인가
말로는 다 전하지 못할 아버지사랑
아, 눈물만이 고마움을 대신하느냐

파죽으로 비약할 내 조국이 보여
.....

인민의 웃음이 넘쳐나는 보금자리
.....

이 행복 이 기쁨 주시려
원수님 바쳐오신 심혈은 그 열
마라
언제나 마음에 인민을 품으시고
기술이신 그 로고가 떠올린
만복의 재부, 최후한 별천지여

산천거리가 전하는 사랑의 전설
그 어느 거리에 가도 가득 넘쳐
나나니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거리
사랑의 거리는 끝나지 않는다
인민의 행복이 꽃피는 거리



주인을 기다리는 새 집

공화국에서 라선시 선봉구역 민복동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레전에 없던 큰물로 무서운 재난을 입었던 이곳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에 떠밀려 사화주의선경마을이 일떠선지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나라의 은덕이 하도 고마워 이곳 인민들은 백학이 날아와 앉은것같은 자기들의 마을을 반복동이라고 이름지었다.

뜻깊은 그 이름과 더불어 이 고장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복을 누려왔으며 이 과정에 꽃피던 가지가지 감동깊은 이야기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는 오늘도 주인을 기다리며 빈집으로 있는 보금자리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홍영원》, 햇빛이 따스히 비쳐드는 반복동의 한 살림집에는 이런 문패가 걸려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다녀가신 사연깊은 살림집과 함께 나란히 서있는 그 집에는 현재 주인이 살고있지 않다. 거기에는 어떤 사연이 깃들여있는것인가.

몇해전 라선시가 콘콜패를 입었을 때 불행에 당한 사람들에게는 홍영원이라는 소년도 있었다.

콘콜에 일가식물모두를 한

꺼번에 잃고 심하게 다쳐 생사기로서 해매는 그를 마을 사람들은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였다.

그런데 얼마후 영원의 작은 가슴에 다 받아안기에 너무도 크나큰 사랑이 와닿았다. 병원침상에 누워있는 그에게 나라에서 새 보금자리를 안겨준것이었다.

그러나 홍리레리는 눈물을 미처 닦아냄도 못하는 그에게 해당 일군이 살림집리용 허가증을 꼭 쥐여주었다.

《어서 자리를 털고일어나 고마운 사화주의조국을 받드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살림집리용허가증에 또박또박 새겨있는 자기 이름을 몇번이고 입속으로 외워보며 영원은 오래도록 어깨를 들먹여었다.

자려로운 어버이의 위대한 사랑이 삶의 자양분이 되어, 사화주의대가정에서 한식술의 정을 나누며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영의지가 되어 그는 수십일만에 대지를 밟고 일어섰다.

그날 제발로 걸어 자기에 앉겨진 새 보금자리에 들어섰다.

아직은 자기가 받아안은 사랑이 얼마나 큰것인지 다는 모를 나이인 영원이, 더우기 혈혈단신 그에게도 나라에서는 돈 한푼 받지 않고 이미

살던 집보다 더 훌륭한 새 보금자리를 안겨주었으니 이런 꿈같은 현실을 사화주의의 땅이 아닌 어디에서 또 찾아볼수 있랴.

잠시후 그는 눈물이 글썽하여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음속진정을 터놓았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저는 의외로 없습니다. 저에게도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형제들이 있으며 언제나 저를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고마운 조국의 품이 있습니다.》

지금 영원은 한없이 소중한 사회주의제도, 어머니조국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 조국보위조소에 서있다.

영원은 비록 자기 집과 멀리 떨어진 초소에 있어도 가슴속에는 고마운 사화주의 제도가 안겨준 삶의 보금자리, 덕과 정으로 화복한 대가정의 식솔들의 모습이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지금도 공화국에는 이런 가슴뜨거운 빈집이야기가 많다. 얼마전 평안군 청학농장에서 지역의 특색과 세련미를 살리면서 현대성과 미학성이 보장된 문화주택들에 농업근로자들이 새 보금자리를 썼다.

그런데 여기 살림집들 가운데 빈집이 여럿이나 있었다. 그 빈집의 사연인즉 군사복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

오는 제대군인들이 들게 될 집이었다. 군건설터단에서는 농촌건설을 진행하는 초시기에 벌써 군사복무를 하고있는 농장원자들이 살게 될 살림집까지 미리 더 지었던 것이다.

농업근로자들에게 현대적인 살림집이 안겨지고 또 앞으로 늘어나게 될 농장의 새 식구들을 위한 보금자리까지 훌륭히 마련되고있는것이 바로 공화국의 현실이다.

지구상 그 어디에나 근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행복은 오직 공화국의 근로를 찾아 철저히 헤매고있다는 말이 실려있다.

이것이 바로 비어있는 살림집상태를 통해 본 사화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이다.

진정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이 되고 모든것이 근로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화주의제도가 아닌 자본주의의 인민들이야말로 세 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들이다.

사람들이 집을 살 엄두를 내지 못하기때문이다. 거리들에 일떠선 현대적인 살림집들의 대다수가 빈집으로 남아있어도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갈 집은 하나도 없다. 이것이 바로 《현대명문》을 떠드는 자본주의사회의 내면세계이다.

남조선의 어느한 잡지에도 특권층 10명이 소유하고있는 살림집만 해도 무려 5500여채에 달하는 반면에 전체 주민에 대한 45%가 제 집이 없어 쓰레내기살이를 하고있고 1000여만명이 계절에 따라 보금자리를 찾아 철저히 헤매고있다는 말이 실려있다.

이것이 바로 비어있는 살림집상태를 통해 본 사화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이다.

진정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이 되고 모든것이 근로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화주의제도가 아닌 자본주의의 인민들이야말로 세 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들이다.

《북의 새 변화거리... 화성지구 새집들이》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평양의 화성 지구에 사화주의변화가, 인민의 리상거리가 웅장화려하게 솟구쳐올라 새집들이가 진행되고있는데 대해 남조선에서 경탄과 부러움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남조선의 언론들은 《사화주의문명의 리상향으로... 평양 화성지구주례 새집들이》, 《북의 새 변화거리... 화성 지구에 새집들이》 등의 제목으로 화성지구 1단계 살림집들이 사상예술품과 건축의 기능적측면에서 완벽한 걸작품들로 완성되었다고 하면서 《건축물들을 감색과 밤색, 회백색타일로 마감하여 은은하면서도 고전미를 느낄수 있게 하였으며 고층살림집들을 도로와 평행하지 않고 락제감이 나도록 배치한것이 특징이다. 거대한 꽃잎들이 펼쳐진 듯한 지붕과 우주를 관망하는 전망대처럼 보이는 지붕 등 지붕장식에 새롭고 독특한

한 건축장식수법을 도입하였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평양의 화성지구에 건설된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평범한 근로자들에게 배정된 데 대해 《대규모의 살림집들이 들어선 화성지구에서 새집들이가 시작되었다. 금수산 테양궁전가까이에 위치한 이곳에 일떠선 새 거리에 로동자들과 교린, 전경명뿐, 재배관, 군인가족 등이 돈 한푼 내지 않고 살림집을 받았다.》, 《북의 새 변화거리로 불리우는 화성지구의 살림집들이 평범한 근로자들이 새집들이를 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정말 놀란다.》, 《화성거리의 상징건물인 40층살림집에 새집들이하는 로동자를 비롯하여 새 살림집을 배정받은 주민들은 창밖으로 안겨오는 웅장화려한 새 거리의 장관에서 눈길을 땄수 없었고있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꽃피는 새집들이경사자 자기 가정에도 펼쳐졌다

고 하면서 신문과 TV에서 보아오던 이런 희한한 살림집이 내 집이라는것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격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북주민들은 한결같이 우리 원수님의 은덕이 너무도 크고 고마워 기쁨보다 눈물이 앞선다. 리상으로 그려보던 현대적인 살림집을 무상으로 받아안고보니 나라의 은덕이 어떻게 보담했으면 좋았을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김정은주쿠위원장께 충성다할 결의를 다지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언론들은 《북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2025년까지 해마다 1만세대씩 총 5만세대의 살림집들을 평양시에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후 첫째 사업으로 지난해 송화거리에 1만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였으며 지난 4월 화성지구에 1만세대 살림집을 완공하고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을 진행하고있다.》고 전하였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어떤 일이나 현상을 두고 걱정할 때가 있다.

그런 걱정이 어찌 한두가지지랴.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가 되어서부터 나에게도 딸을 두고 하는 걱정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락아소매에는 류달리 발투정이 심한 애가 발을 제대로 뜨지 않아 걱정이더러 유치원시절에는 피아노를 친다, 바둑을 한다 하며 여기저기 《우물》을 파놓기만 해서 앞으로 커서 뭘 하려고 그러는지 하는 생각에 걱정이 더해졌다.

하지만 무슨 대수랴. 다른 얼마들든 다 나같이 이런 공통의 걱정을 늘 가슴에 달고 사는대야.

오래전 정말 큰 걱정이리는 좀 있으면 소학교를 졸업하게 될 딸에의 걱정이였다.

며칠전 담임선생님께서 전화를 걸러왔다. 소학교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딸에의 전말과 관련하여 피아노를 치는 감각이 뛰어나오니 예능 전문으로 하는 학원에 보내겠는가 아니면 수학에서도 학급에서 단연 첫자리이니 1중학교에 보내겠는가 하는것을 의논하자는것이였다.

본인의 결심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결심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면서.

자식의 전말과 관련한 첫 선택이다.

어느 학교에 보낼것인가? 정말 걱정은 크다. 이것도 저것도 다 마음에 드는데 그렇다고 이 학교, 저 학교 다 보낼수는 없는거지 이쪽을 생각하면 저쪽, 저쪽을 생각하면 또 이쪽이 나아보이는것같아 도무지 갈피를 잡을수 없다.

이런 나를 두고 시어머니나 본가집어머니가 꼭같이 하는 말이 《정말 행복한 걱정을

하고있구나.》이다.

아이참, 자식문제때문에 걱정하는데 행복하다는건? 하지만 가만히 음미해보니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다.

학교에 보내고싶어도 보낼수 없는 그런 걱정이 아니라 어느 학교에 보내겠는가 하는 걱정이기때문이다.

행복한 걱정이란 말이 가슴에 파고들수록 정말이지 세상이 부럽없이 맑게 자라는 우리 자식이 고마운 내 나라가 얼마나 좋은가를 다 알고나 있는지 그것이 몹시 걱정스러운 마음이다.

이 어머니가 자식의 밝은 전도를 놓고 이처럼 행복한 걱정을 하고있을 때 저 남조선편의 어머니들은 과연 어

떤 걱정을 하고있는것인가.

지금으로부터 1년전 지상에 실렸던 글이 문득 떠오른다.

비록 글줄로 접한 이야기였지만 남조선의 불우한 한 어머니가 나에게 터놓은 사연인것만 같아 새겨보던 눈곱에 눈물이 고여오른다.

빠듯한 살림에 세금내거조차 걱정인데 등록금인상으로 차의 학교집어머니가 꼭같이 하는 말이 《정말 행복한 걱정을

하고있구나.》이다.

아이참, 자식문제때문에 걱정하는데 행복하다는건? 하지만 가만히 음미해보니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다.

학교에 보내고싶어도 보낼수 없는 그런 걱정이 아니라 어느 학교에 보내겠는가 하는 걱정이기때문이다.

행복한 걱정이란 말이 가슴에 파고들수록 정말이지 세상이 부럽없이 맑게 자라는 우리 자식이 고마운 내 나라가 얼마나 좋은가를 다 알고나 있는지 그것이 몹시 걱정스러운 마음이다.

이 어머니가 자식의 밝은 전도를 놓고 이처럼 행복한 걱정을 하고있을 때 저 남조선편의 어머니들은 과연 어

녀성만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일생을 바쳐도 될수 없는 걱정의 중앙에 놓여있고 지름을 쓰고있다.

언제 직업용 메를지 몰라 늘 불안에 마음조이는 걱정도 있고 큰물이 밀려들면 집이 닦인 반지하집이 물에 잠겨 걱정, 물가가 날마다 뛰어나니 생계를 이어갈 걱정, 날마다 궁궁대는 포소리야 땅고의 평을에 전성기 일어날가 두려운 걱정이 뵈어지지 않는 못처

럼 가슴에 아프게 박혀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학교에 나가면 물리우교 구타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 대학을 졸업하면 직업걱정, 군대에 나가면 언제 기합을 당해 고통당하고 총탄에 가슴 꿰뚫지 않을까 하는 걱정 등 겹겹결을, 날과 날이 걱정의 연속으로 무정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실로 멀어내는 걱정은 없고 더해지는 걱정이 있는 사회이다.

걱정이란 말은 같아도 그 말씀에 비긴 서로 다른 제도에서 사는 인간들의 모습은 이처럼 판이하다.

평민들은 죽기 딱 좋은 사회라고 남조선의 민심이 침울할는 그 사회에서는 단지 이

가, 어떻게 하면 인민들이 무병무탈할수 있겠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 국가가 늘 품고있는 걱정이다.

하지만 민생은 아랑없어 어떻게 하면 외세인 미국의 비위를 더 잘 맞출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권력의 다름에서 이기고 살아남겠는가, 어떻게 하면 당국과 정치에 대한 민심의 불만과 분노의 평을에 다른데로 돌릴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남을 디디고 올라서 내 배를 채울수 있겠는가, 바로 이것이 특권층을 위한 사화인 남조선사회에서 당국자들과 정객들이 안고있는 걱정거리이다.

정경 우리가 늘 입에 올리는 하는 걱정이란 이 말에도 인생과 사화에서의 빛과 어둠이 대조적으로 비껴있다.

나는 말에의 전말을 놓고 어머니의 이름으로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려고 생각했다.

이 좋은 제도, 떠나선 못할 이처럼 살기 좋은 내 나라에서 언택의 선택권이 앞에 놓인다 해도 그 언택의 선택권은 다 행복이고 기쁨이며 즐거움이다.

딸아, 걱정 말고 네 운명을 네 손으로 선택해라.

너의 운명, 너의 앞날에 대해 이 어머니는 걱정하지 않는다.

수필 빛과 어둠

식민은 어떻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아 돈을 벌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다. 밤낮으로 일하다나니 극도의 피곤으로 하여 이차 현실로 기계돌달에 몽롱한 손이 잘려나갔다. 이제 어떡한단 말인가? 이 한 손으로 내가 할수 있는것이 이제 더 무엇이란 말인가...

한손을 잃은 그 어머니의 눈물겨운 절규.

나는 얼굴을 알지않는 그 너의 정상을 두고 생각했다.

한손이 아닌 두손이 다 있다면 짐을 떠고 일러설수 있던 말인가?

평민들은 죽기 딱 좋은 사회라고 남조선의 민심이 침울할는 그 사회에서는 단지 이

세계적인 명약개발에 열정을 바쳐가는 여성과학자

병없이 건강한 몸으로 오래 살려는것은 누구나 바라는 소원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질병을 예방 및 치료하는 의약품 개발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은 날로 높아가고있다.

최근 공화국의 김춘옥 교리의학종합병원 연구사가 개발한 인삼삼지구엽초항암알약에 대한 평판이 자자하다.

다른 항암제들과 달리 이

평의 산과 들 그 어디에나 흔한 고려약재를 리용하여 우리 식의 독특한 제조법으로 만든 인삼삼지구엽초

리용한 병합리용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인삼삼지구엽초항암알약처럼 전신을 회복하고 말초혈액을 빠르게 개선하면서 림프선질에서 효력을 본 실례는 없다고 한다.

약물자체의 독성으로 부작용이 큰 기존의 항암제들과는 달리 암세포에 의해 손상된 인체를 재생시키면서 치료효율을 훨씬 높이는것, 이것이 인삼삼지구엽초항암알약이 가진것있는 장점이라 하는것이다.

많은 의학전문가들이 인삼삼지구엽초항암알약을 가리켜 항암제분야에서 하나의 혁명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있다 과연 그럴만도 했다.

우리 민족의 자랑인 고려약으로 불치의 병으로 되고있는 암에 도전하여 가졌던 연구성과를 이룩한 비결을 알고싶어하는 우리에게 김춘옥연구사는 말하였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꿈을 소중히 여기고 꽃피워주는 고마운 사화주의제도가 아니었다면 평범한 정방공로 일하러오던 제가 어떻게 세계에 도전하는 연구성과를

함양약은 림프선질에서 그 우월성이 뚜렷이 검증되었으며 조진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허증서를 받았다.

그는 늘 고려약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된 자기의 모습을 그려보곤 하였다.

비록 전문연구사는 아니었지만 아무리 흔한 고려약재라도 가지고 불치의 병을 치료하고 전신을 재생회복시키기 위한 탐구의 길에 스스로 뛰어들었던 정방공로로 일할 때라고 한다.

공장에서 실을 뽑는 속에서도 김춘옥은 자기가 내세

운 목표에 부합되는 많은 착상을 하였다.

그런 그를 기특하게 여기고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저마다 도와나섰다. 그의 연구에 필요한 책이라든가 아무리 먼곳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 구해다주었고 신문들에 새로운 의학소식이 실리던 날마다 알려주곤 하였다.

《기초지식이 부족하여 막 안락하게 때가 많았습니다. 대학에서 약학을 배우고싶었습니다.》

효능높은 새 항암제를 연구도입하여

민간로범에 밝았고 의학에 일정한 조예를 가지고있던 김춘옥은 대학시절 선진문헌 자료들을 탐구하는 과정에 기관관례대로가 아니라 효소를 넣지 않고 이 땅에 흔한 고려약재를 기질로 하고 저온, 저압의 생물반응기를 리용하여 항암작용과 생리활성작용이 강한 새로운 성분들을 만드는 제조법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졸업후에는 대학에서 연구사로 일하면서 생물제약법을 과학적으로 정립하는 한편 새로 개발한 항암제에 대한 동물실험을 계속하였다.

《그런데 글썽,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아직 나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던 저의 연구사업성형을 몸소 리해하시고 생물반응기에 의

한 제조법을 보다 높은 단계에서 과학화할수 있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름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평양에 소환되어 고려리의학종합병원 연구사로 일하게 된 김춘옥은 크나큰 믿음에 보답할 일념을 안고 연구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그는 순간의 주저와 망설음을 몰랐다. 지칠줄 모르는 탐구의 나날 김춘옥연구사는 국가과학원을 비롯한 림판단위들과 지혜와 힘을 합쳐 그 효과성이 검증된 새로운 항암제연구에서 끝끝내 성공하고야말았다.

새로운 제조법으로 만든 효능높은 항암제에 관한 림판단의 소문은 국제잡지에도 게재되었으며 국내외과학

자들과는 미처 생각지 못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공장일군이 손에 쥐여주는 림판의학대학 후천서를 펼쳐보았을 때 김춘옥은 기쁨에 앞서 놀라움에 더 컸다.

남몰래 품은 로동자처녀의 마음속소원까지 헤아려 배움의 노래를 활짝 펴도록 보살펴주는 나라의 은덕이 너무도 크마와 그는 대학후천서에 얼굴을 묻고야 말았다.

《경애하는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것은 공화국에서 모든 사람들의 꿈에 얼마나 귀중히 여기며 어떻게 활짝 꽃피워주고있는가 하는것을 보여 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꿈은 소중한 것이다. 하기에 사람들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한생을 바쳐기도 한다.

이 땅의 그 어디에 가보아

도 평범한 근로자들이 대의원이 되고 과학자, 체육인, 예술인이 되려는 꿈과 희망이 현실로 되었다고 눈곱을 적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

진정 고마운 그 품속에 마음껏 반복의 꿈을 꾸고 현실로 꽃피워가는 이 나라 인민들처럼 복받은 인민이 또 어디에 있랴.

김춘옥연구사의 꿈과 포부는 더욱 커지고있다.

세계를 앞서나가는 우리 식의 훌륭한 연구성과들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시는 인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켜가려는것이 그가 안고 사는 강렬한 열망이다.

평범한 여성과학자의 성장에서 우리는 다시금 절감하였다.

우리 사는 이 땅은 아름다운 꿈을 낳는 토양이고 사화주의조국은 그 꿈을 활짝 꽃피워주는 은혜로운 품이라는것을.

김춘옥연구사(오른쪽)

김춘옥연구사(오른쪽)



추악한 《친일외교》의 진상을 까발린다

지금 은 거래와 전 세계는 윤석열매국 역도가 4월말에 있는 워싱턴행사에서 조선반도를 핵전쟁의 불도가니속으로 몰아 넣고 동북아시아지역을 신냉전의 최대열점으 만들기 위한 위협천만한 모의관을 벌린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있다.

하지만 윤석열역도가 저지른 만고 최악은 이것만이 아니였다.

지난 3월에 있는 윤석열역도의 도쿄행각, 5월에 들어와 진행된 일본수상 기사다눔의 서울행각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수뇌왕복외교》 역시 역도가 저지른 또 하나의 용납 못할 매국매족적인 범죄였으며 불구대전의 친년속적인 일본것들에게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통째로 섬겨버치려는 사대굴종으로 일관된 식민지주주의 정체를 백일화에 드러내놓는 망국적추태의 연장이다.

조국통일연구원은 최악에 최악을 덧씌우며 《수뇌왕복외교》의 외로워 가리워진 윤석열역도의 추악한 《친일외교》놀음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이 상보를 낸다.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일본과 《북미싸일정보》에 대한 실시간공유를 추진해야 한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협을 합쳐야 한다고 제논의 친일매국의 진속도 거리낌없이 드러냈다.

반대로 피퇴내부의 반일세력에 대해서는 《쌍방관계를 정치에 리용하려는 세력》이라고 매도하고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는 제논의 《선거공약》이며 모순된 판결을 조화롭게 해결하는것은 《지도자의 책무》라는 황당무계한 케번까지 늘어놓았다.

역도의 친일본색을 확인한 일본것들은 《요미우리신봉》에 역도의 기자회견 내용을 무려 9개 면에 걸쳐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국제적으로 널리 여론화하려 했으며 역도가 다른 말을 하지 못하게 대못을 박았다.

이렇게 되어 단행된 윤석열역도의 도쿄행각은 문자 그대로 치참하고 치욕스러운 굴욕외교의 극치였다.

역도는 도쿄행각당일인 3월 16일 우리가 공화국 전략무력의 조강력대우태세에 대한 시위로 대륙간란도미싸일 발사훈련을 단행하자 도쿄 한복판에 《림시상황실》이라느것을 황급히 차려 놓고 상황점검놀음을 벌여놓았는데 이것은 제논의 행각목적이 철두철미 일본의 군사적패망이 반공화국대결책동에 지향되도록 하는데 있다는것을 상연에게 보여주려는 의도였다.

1

지난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윤석열역도가 피퇴집권자로서는 12년만에 일본을 행각하였다.

역도의 일본행각은 왜나라족속들이 과거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구악무도한 죄악을 덮어버리고 백지화해준 대가로 이루어졌다.

1983년 1월 당시 일본수상 나카소네가 서울을 행각하여 일제의 과거죄악에 대해 역지르라고 《유감과 《반상》을 떠든것이 계기가 되어 일본과 피퇴들 사이에 해마다 서로 오가면서 벌리는 《수뇌왕복외교》 놀음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구악보수분자 아베노는 일본수상으로 취임하면 일본군성노예문제, 과거사문제, 독도문제 등에서 피퇴들에 대해 고압적인 강경일변도립장을 취해온것으로 하여 피퇴들과 일본과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면서 쌍방사이에 해마다 서로 오가면서 벌리던 《수뇌왕복외교》 놀음도 단절되었다.

이러한 일변도립장을 취해온것으로 하여 피퇴들과 일본과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면서 쌍방사이에 해마다 서로 오가면서 벌리던 《수뇌왕복외교》 놀음도 단절되었다.

피퇴들과 일본사이의 관계가 보다 악화되려는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수백만의 조선청년들을 일본에 강제로 끌고가 노예로동을 강요한 일본의 죄행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남조선 각계층의 즐기하고도 일강한 투쟁으로 2018년 10월 피퇴대법원에서 일본의 전범기업 《신일본제철》에 손해배상금을 지불할데 대한 판결을 내린데 대해 일본것들이 보복조치를 취해나섰기 때문이었다.

당시 일본당국자들은 경제산업성을 내세워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남조선에 대한 주요제품수출금지조치를 취하고 남조선을 《수출우대국》 명단에 제외하였으며 이후 피퇴법정의 사과와 배상판결의 철폐가 있기 전에는 쌍방관계를 정상화할수 없다는 강도적인 요구를 들어대면서 지금껏 피퇴들을 뺱뺱하게 대해왔다.

이로 하여 일제강제징용피해자배상문제는 피퇴들과 일본사이에 서로 양보하기 어려운 난문제로 되였으며 남조선의 이젠 집권자도 피퇴대법원이 내린 판결까지 뒤집으면서 일본의 요구를 감히 받아들이수 없었다.

그러나 구악보수분자 아베노는 일본수상으로 취임하면 일본군성노예문제, 과거사문제, 독도문제 등에서 피퇴들에 대해 고압적인 강경일변도립장을 취해온것으로 하여 피퇴들과 일본과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면서 쌍방사이에 해마다 서로 오가면서 벌리던 《수뇌왕복외교》 놀음도 단절되었다.

피퇴들과 일본사이의 관계가 보다 악화되려는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수백만의 조선청년들을 일본에 강제로 끌고가 노예로동을 강요한 일본의 죄행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남조선 각계층의 즐기하고도 일강한 투쟁으로 2018년 10월 피퇴대법원에서 일본의 전범기업 《신일본제철》에 손해배상금을 지불할데 대한 판결을 내린데 대해 일본것들이 보복조치를 취해나섰기 때문이었다.

당시 일본당국자들은 경제산업성을 내세워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남조선에 대한 주요제품수출금지조치를 취하고 남조선을 《수출우대국》 명단에 제외하였으며 이후 피퇴법정의 사과와 배상판결의 철폐가 있기 전에는 쌍방관계를 정상화할수 없다는 강도적인 요구를 들어대면서 지금껏 피퇴들을 뺱뺱하게 대해왔다.

이로 하여 일제강제징용피해자배상문제는 피퇴들과 일본사이에 서로 양보하기 어려운 난문제로 되였으며 남조선의 이젠 집권자도 피퇴대법원이 내린 판결까지 뒤집으면서 일본의 요구를 감히 받아들이수 없었다.

2

윤석열피퇴역도의 3월 도쿄행각이 추악한 친일굴종행위의 서막이었다면 이번 5월 7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일본수상 기사다눔의 서울행각은 역도의 친일굴종행위를 보다 확실한 계기로 되었다.

이번 기사다눔은 3월 윤석열역도의 도쿄행각5일간 피퇴로부러 불광산 다 본것만큼 강경한 윤석열의 리외시마에서 열리는 7개 국립단체수뇌차회의에 역도를 방청객경도로 참가시켜 친일굴종행위를 거듭 확인한 다음에 서울행각에 나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사다눔을 움직이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

윤석열역도가 4월 24일 미국행각을 앞두고 진행한 미국신문 《워싱턴 포스트》와의 회견에서 《남조선의 안보상황이 너무 시급하기때문에 일본과의 협력을 미룰수 없다. 100년전에 일어났던 일본군에 일본과의 협력이 절대 불가능하거나 일본인들이 무조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느 생각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웨치면서 일제의 과거죄행을 전면백지화하려는 기도를 다스급 드러내놓았다.

이와 함께 역도는 2019년에 취하였던 남조선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를 해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퇴산업통상자원부를 내세워 일본을 《수출우대국》 명단에 다시 포함시켜 일본기업들에게 피퇴지역 진출기회를 열어주었다.

뒤이어 미국행각길에 오른 역도는 4월 27일 바이든과의 회담을 통해 발표한 《공동성명》에 역대 남조선미수뇌회담때마다 미일남조선 3자협력의 중요성만 언급되던 판례를 깨고 3자사이의 《북미싸일정보》의 실시간공유, 반잠수함훈련 및 해상미싸일방어훈련의 정상화, 해양차단훈련 및 반핵재해훈련재계의 구체적내용들을 박아넣으면서 상진의 《3각군사동맹》 3국체제를 충실히 리행하겠다는 말을 약속해나섰다.

결실하게 되었다는 기사다의 《구두원지》를 전달하였고 이에 대해 역도는 과거사에 대한 《사과》문제로 너무 부담을 가지지 말아달라고 기사다에게 전해달라고 지껄어 또다시 민족의 존엄을 상전이 밝고 넘어을 짐장들로 깔아주었다.

이와 반면에 서울행각전날인 6일까지 기사다는 정부관계자들과 언론들을 내세워 7일에 있게 되는 윤석열역도와의 회담에서 《정용공》 (강제징용피해자)문제에 대해 3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해결책리행상황을 확인할것이다. 윤석열 《정부》에 후쿠시마수산물수입개제를 할 문제이다. 일본은 식민지배에 대해 더이상 사과할 필요가 없다. 일본군성노예 《합의》를 비롯한 갈등문제들도 남조선이 양보해야 한다 등 역도의 뒤통수를 치는 소리들이 연속 터져나왔다.

윤석열역도의 행각지후 피퇴들이 먼저 일본의 남조선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를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였것을 철폐한다는 립장을 밝혔지만 일본경제산업상은 남조선을 《수출우대국》 명단에 복귀시키는 문제는 즉시 해결할수 없으며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말로 응수하였다.

지어 일본은 역도의 행각이 끝나 이후에 리사교관들에게 또다시 독도를 《일본의 고유령토》로 표기하는데 이어 올해 《외교청서》에도 《다케시마(독도)는 리사적사실로 보나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고유의 령토》라고 쏘아박는것으로 윤석열역도의 처지를 치욕의 구렁렁이 에 가차없이 차던졌다.

참으로 윤석열역도의 도쿄행각은 천년속적인 왜나라족속들이게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송두리째 팔아먹고도 상진으로부러 더 많은것을 내놓으라는 《형구서》만 받아들고 돌아온 매국매족의 길이었다.

윤석열역도가 벌린 추악한 《친일외교》놀음은 피퇴내부를 벌등지 썩서주는것처럼 만들어놓고 역도를 력사의 실패판에 올려세우려는 대중적합거를 촉발시켰다.

대중적인 분노는 역도의 도쿄행각전야 부러 전사회적으로 급속히 타올랐다.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로총》을 비롯하여 610여개 각계층 단체들로 구성된 《한일리사정의 평화행동》과 각계 원로들은 역도의 일본행각을 하후 앞둔 3월 15일 서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이 행각기간 숙제결을 받듯이 일본수상 기사다에게 구체적인 일제강제징용피해자배상방안인 자기의 《응기있는 결단》이라는 점을 보여줄것이지 아니라 과거범죄에 대한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 미일남조선군사협력중단,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 핵오염수방류철폐, 제일동포차별혐오중단 등을 당면히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같은 날 력사학회, 력사교육연구회를 비롯한 40여개 력사관련단체들과 력사학계는 성명을 통해 일제강제징용피해자배상방안은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의 반인도성적인, 반인권적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굴욕적인 방안이라고 하면서 윤석열이 행각기간에 일본에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들어대었다.

《민주로총》 소속 《전국속속로동조합》 경인지부, 《진보당》 진주시위원회의는 역도의 행각 첫날에 창천리와 진주시내의 곳곳에 《일본간첩 윤석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라》, 《윤석열은 친일매국》, 《굴욕외교중단》, 《가해국의 사과빠진 굴욕적강제동원해법 철폐하라》라고 쓴 프랑카드를 내걸고 반일, 반윤석열투쟁을 벌였다.

윤석열역도가 도쿄행각에서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송두리째 팔아먹고 일본의 강도적인 요구만 한가득 받아온것은 역도에 대한 피퇴각계층의 민아오른 분노를 폭발시켰다.

서울지역의 14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한 《윤석열정권심판 서울시국회의》는 역도와 기사다눔의 회담결과소식이 전해진 3월 17일 서울 통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회담은 굴욕적협상이었다. 《국민적동의》 회의 모돈것을 내어준 《조공외교》이다. 최악의 외교참사이자 굴욕적인 권외외교이라고 규탄하였다.

3월 18일과 25일 서울시장 양광장에서는 《한일리사정의 평화행동》과 6.15공공선언전 남측위원회에 비롯한 피퇴시민사회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의 주도밑에 역도의 추악한 친일행각과 대일굴종외교를 단죄규탄하고 굴욕적인 일제강제징용피해자배상방안폐기와 일본의 사과, 배상을 요구하는 수만명규모의 《법국민대회》들이 진행되었다.

대법청가자들은 《강제동원 굴욕해명 무효이다》, 《윤석열 망국외교 실패판하자》, 《력사정의 평화 실현하자》, 《일본은 사과배상하라》, 《윤석열이친일매국》 등의 구호를 웨치면서 반윤석열투쟁기세를 올렸다.

아당대표들은 연단을 직접 올라가 윤석열이 끌레바 일본하수인의 길을 택하였다. 윤석열이 《죽덕》도 민족존엄도, 동북아시아평화도 다 팔아먹었다. 일본의 입맛에 맞는데도 모든것을 섬겨바친 《조공외교》만 하였다. 《선물보따리》를 잔뜩 들고갔지만 가지고온것은 값비싼 《형구서》뿐이다. 계속 일본에 머리를 숙이고 《굴욕성파》를 얻는 윤석열이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성도못하였다.

3월 18일과 25일 서울시장 양광장에서는 《한일리사정의 평화행동》과 6.15공공선언전 남측위원회에 비롯한 피퇴시민사회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의 주도밑에 역도의 추악한 친일행각과 대일굴종외교를 단죄규탄하고 굴욕적인 일제강제징용피해자배상방안폐기와 일본의 사과, 배상을 요구하는 수만명규모의 《법국민대회》들이 진행되었다.

대법청가자들은 《강제동원 굴욕해명 무효이다》, 《윤석열 망국외교 실패판하자》, 《력사정의 평화 실현하자》, 《일본은 사과배상하라》, 《윤석열이친일매국》 등의 구호를 웨치면서 반윤석열투쟁기세를 올렸다.

아당대표들은 연단을 직접 올라가 윤석열이 끌레바 일본하수인의 길을 택하였다. 윤석열이 《죽덕》도 민족존엄도, 동북아시아평화도 다 팔아먹었다. 일본의 입맛에 맞는데도 모든것을 섬겨바친 《조공외교》만 하였다. 《선물보따리》를 잔뜩 들고갔지만 가지고온것은 값비싼 《형구서》뿐이다. 계속 일본에 머리를 숙이고 《굴욕성파》를 얻는 윤석열이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성도못하였다.

3월 18일과 25일 서울시장 양광장에서는 《한일리사정의 평화행동》과 6.15공공선언전 남측위원회에 비롯한 피퇴시민사회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의 주도밑에 역도의 추악한 친일행각과 대일굴종외교를 단죄규탄하고 굴욕적인 일제강제징용피해자배상방안폐기와 일본의 사과, 배상을 요구하는 수만명규모의 《법국민대회》들이 진행되었다.

대법청가자들은 《강제동원 굴욕해명 무효이다》, 《윤석열 망국외교 실패판하자》, 《력사정의 평화 실현하자》, 《일본은 사과배상하라》, 《윤석열이친일매국》 등의 구호를 웨치면서 반윤석열투쟁기세를 올렸다.

아당대표들은 연단을 직접 올라가 윤석열이 끌레바 일본하수인의 길을 택하였다. 윤석열이 《죽덕》도 민족존엄도, 동북아시아평화도 다 팔아먹었다. 일본의 입맛에 맞는데도 모든것을 섬겨바친 《조공외교》만 하였다. 《선물보따리》를 잔뜩 들고갔지만 가지고온것은 값비싼 《형구서》뿐이다. 계속 일본에 머리를 숙이고 《굴욕성파》를 얻는 윤석열이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성도못하였다.

3월 18일과 25일 서울시장 양광장에서는 《한일리사정의 평화행동》과 6.15공공선언전 남측위원회에 비롯한 피퇴시민사회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의 주도밑에 역도의 추악한 친일행각과 대일굴종외교를 단죄규탄하고 굴욕적인 일제강제징용피해자배상방안폐기와 일본의 사과, 배상을 요구하는 수만명규모의 《법국민대회》들이 진행되었다.

대법청가자들은 《강제동원 굴욕해명 무효이다》, 《윤석열 망국외교 실패판하자》, 《력사정의 평화 실현하자》, 《일본은 사과배상하라》, 《윤석열이친일매국》 등의 구호를 웨치면서 반윤석열투쟁기세를 올렸다.

아당대표들은 연단을 직접 올라가 윤석열이 끌레바 일본하수인의 길을 택하였다. 윤석열이 《죽덕》도 민족존엄도, 동북아시아평화도 다 팔아먹었다. 일본의 입맛에 맞는데도 모든것을 섬겨바친 《조공외교》만 하였다. 《선물보따리》를 잔뜩 들고갔지만 가지고온것은 값비싼 《형구서》뿐이다. 계속 일본에 머리를 숙이고 《굴욕성파》를 얻는 윤석열이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성도못하였다.

3월 18일과 25일 서울시장 양광장에서는 《한일리사정의 평화행동》과 6.15공공선언전 남측위원회에 비롯한 피퇴시민사회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의 주도밑에 역도의 추악한 친일행각과 대일굴종외교를 단죄규탄하고 굴욕적인 일제강제징용피해자배상방안폐기와 일본의 사과, 배상을 요구하는 수만명규모의 《법국민대회》들이 진행되었다.

대법청가자들은 《강제동원 굴욕해명 무효이다》, 《윤석열 망국외교 실패판하자》, 《력사정의 평화 실현하자》, 《일본은 사과배상하라》, 《윤석열이친일매국》 등의 구호를 웨치면서 반윤석열투쟁기세를 올렸다.

아당대표들은 연단을 직접 올라가 윤석열이 끌레바 일본하수인의 길을 택하였다. 윤석열이 《죽덕》도 민족존엄도, 동북아시아평화도 다 팔아먹었다. 일본의 입맛에 맞는데도 모든것을 섬겨바친 《조공외교》만 하였다. 《선물보따리》를 잔뜩 들고갔지만 가지고온것은 값비싼 《형구서》뿐이다. 계속 일본에 머리를 숙이고 《굴욕성파》를 얻는 윤석열이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성도못하였다.

한하는 각계층의 《법국민대회》가 3월한달동안 서울에서만도 4차례에 걸쳐 대규모로 진행되었다.

윤석열역도의 친일행각을 단죄규탄하며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발표투쟁은 대학교원, 연구사를 비롯한 지식인들속에서 활발히 벌어졌다.

《보수의 아성》으로 알려진 대구와 경상북도지역에서 3월 21일과 22일, 27일 발표된, 연구사 300여명이 시국선언문을 교원회판에 이어 《경희대학교》, 《부산대학교》, 《중앙대학교》, 《전북대학교》, 《성균관대학교》를 비롯하여 남조선의 주요대학들에서 수천명의 교원, 연구사들이 시국선언문, 시국성명들을 발표하였다.

특히 3월 22일 《경북대학교》 학생회판앞에 《윤석열퇴진학생운동본부 경북대지부》명으로 나붙은 《대자보》에는 《과거를 외면하는 상태에서 무슨 미래가 있고 어떻게 정상적인 관계회복이 가능하겠는가. 민족의 력사와 아픔을 팔아먹은 윤석열과 그 무리들은 21세기의 리완용이라고 부를만하다》라느 글이 새겨져 역적패당을 당황망조케 하였다.

그런가 하면 인터넷홈페이지들에는 《왜들들은 사죄 한마디 없는데 혼자 장교를 치고 북을 치며 왜들들에게 알랑거리느 윤석열은 조상들의 뼈다귀나 싸들고 일본으로 가라》, 《윤애늬때문에 속에서 친불이 난다》, 《한고리족은 속안용》, 《매국노대통령》, 《기사다의 앞잡이》, 《통신총독》, 《일본군정》, 《일본간첩》, 《일본의 충견》 등의 비난글들이 쏟아졌다.

지어 인터넷에는 《나에게 총 한자루와 실탄 100여발을 달라. 일본총독 윤석열을 력사와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하겠다. 윤애늬때를 처단하여 눈이 좋아하는 왜나라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 옆에 묻어버리겠다》는 글까지 울었다.

윤석열역도의 친일매국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일본수상 기사다의 서울행각을 계기로 더욱 고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을 비롯한 피퇴야당들과 9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사다의 서울행각을 앞둔 5월 4일 《국회》 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도가 기사다와의 회담에서 일본의 식민지지배역사의무과 《독도영유권》 주장중단, 일제강제징용과 일본군성노예문제와 관련한 사과와 배상,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 핵오염수방류중단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들어대었다.

특히 각계층은 기사다의 일본법정부임을 계기로 《자유대》를 헌법에 명기하는것은 매우 절실하다고 떠벌이며 일본의 재무장아망을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윤석열이 《안보》라명을 하며 일본의 재무장을 묵인해주는 경우 남조선이 《신냉전》의 희생물로 될수 있다고 하면서 남조선인민, 미일남조선군사협력을 규탄배격해나섰다.

기사다놈의 서울행각을 하후 앞둔 5월 6일 비내리는 곳은 날씨에도 진보적인 시민단체인 《초출승리전환행동》은 서울에서 기사다눔의 서울행각을 반대하고 윤석열 《정부》의 대일굴욕외교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인데 이어 저녁에는 610여개 각계층 단체들로 구성된 《한일리사정의 평화행동》과 함께 기사다눔의 서울행각을 규탄반대하는 초출문화제를 개최하면서 투쟁기세를 올렸다.

《대화생진보련합》과 《경기주권련대》, 《학생진우평화통일위원회》 등 진보운동단체 성원들은 기사다눔의 서울행각당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비행장과 《국립서울헌정기념관》을 비롯하여 기사다눔의 행각장소에서 과거사범죄에 대한 일본정부는 진정성 3월 17일 서울 통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회담은 굴욕적협상이었다. 《국민적동의》 회의 모돈것을 내어준 《조공외교》이다. 최악의 외교참사이자 굴욕적인 권외외교라고 규탄하였다.

3월 18일과 25일 서울시장 양광장에서는 《한일리사정의 평화행동》과 6.15공공선언전 남측위원회에 비롯한 피퇴시민사회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의 주도밑에 역도의 추악한 친일행각과 대일굴종외교를 단죄규탄하고 굴욕적인 일제강제징용피해자배상방안폐기와 일본의 사과, 배상을 요구하는 수만명규모의 《법국민대회》들이 진행되었다.

대법청가자들은 《강제동원 굴욕해명 무효이다》, 《윤석열 망국외교 실패판하자》, 《력사정의 평화 실현하자》, 《일본은 사과배상하라》, 《윤석열이친일매국》 등의 구호를 웨치면서 반윤석열투쟁기세를 올렸다.

아당대표들은 연단을 직접 올라가 윤석열이 끌레바 일본하수인의 길을 택하였다. 윤석열이 《죽덕》도 민족존엄도, 동북아시아평화도 다 팔아먹었다. 일본의 입맛에 맞는데도 모든것을 섬겨바친 《조공외교》만 하였다. 《선물보따리》를 잔뜩 들고갔지만 가지고온것은 값비싼 《형구서》뿐이다. 계속 일본에 머리를 숙이고 《굴욕성파》를 얻는 윤석열이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성도못하였다.

3월 18일과 25일 서울시장 양광장에서는 《한일리사정의 평화행동》과 6.15공공선언전 남측위원회에 비롯한 피퇴시민사회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의 주도밑에 역도의 추악한 친일행각과 대일굴종외교를 단죄규탄하고 굴욕적인 일제강제징용피해자배상방안폐기와 일본의 사과, 배상을 요구하는 수만명규모의 《법국민대회》들이 진행되었다.

대법청가자들은 《강제동원 굴욕해명 무효이다》, 《윤석열 망국외교 실패판하자》, 《력사정의 평화 실현하자》, 《일본은 사과배상하라》, 《윤석열이친일매국》 등의 구호를 웨치면서 반윤석열투쟁기세를 올렸다.

아당대표들은 연단을 직접 올라가 윤석열이 끌레바 일본하수인의 길을 택하였다. 윤석열이 《죽덕》도 민족존엄도, 동북아시아평화도 다 팔아먹었다. 일본의 입맛에 맞는데도 모든것을 섬겨바친 《조공외교》만 하였다. 《선물보따리》를 잔뜩 들고갔지만 가지고온것은 값비싼 《형구서》뿐이다. 계속 일본에 머리를 숙이고 《굴욕성파》를 얻는 윤석열이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성도못하였다.

그러나 구악보수분자 아베노는 일본수상으로 취임하면 일본군성노예문제, 과거사문제, 독도문제 등에서 피퇴들에 대해 고압적인 강경일변도립장을 취해온것으로 하여 피퇴들과 일본과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면서 쌍방사이에 해마다 서로 오가면서 벌리던 《수뇌왕복외교》 놀음도 단절되었다.

피퇴들과 일본사이의 관계가 보다 악화되려는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수백만의 조선청년들을 일본에 강제로 끌고가 노예로동을 강요한 일본의 죄행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남조선 각계층의 즐기하고도 일강한 투쟁으로 2018년 10월 피퇴대법원에서 일본의 전범기업 《신일본제철》에 손해배상금을 지불할데 대한 판결을 내린데 대해 일본것들이 보복조치를 취해나섰기 때문이었다.

당시 일본당국자들은 경제산업성을 내세워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남조선에 대한 주요제품수출금지조치를 취하고 남조선을 《수출우대국》 명단에 제외하였으며 이후 피퇴법정의 사과와 배상판결의 철폐가 있기 전에는 쌍방관계를 정상화할수 없다는 강도적인 요구를 들어대면서 지금껏 피퇴들을 뺱뺱하게 대해왔다.

이로 하여 일제강제징용피해자배상문제는 피퇴들과 일본사이에 서로 양보하기 어려운 난문제로 되였으며 남조선의 이젠 집권자도 피퇴대법원이 내린 판결까지 뒤집으면서 일본의 요구를 감히 받아들이수 없었다.

그러나 구악보수분자 아베노는 일본수상으로 취임하면 일본군성노예문제, 과거사문제, 독도문제 등에서 피퇴들에 대해 고압적인 강경일변도립장을 취해온것으로 하여 피퇴들과 일본과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면서 쌍방사이에 해마다 서로 오가면서 벌리던 《수뇌왕복외교》 놀음도 단절되었다.

피퇴들과 일본사이의 관계가 보다 악화되려는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수백만의 조선청년들을 일본에 강제로 끌고가 노예로동을 강요한 일본의 죄행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남조선 각계층의 즐기하고도 일강한 투쟁으로 2018년 10월 피퇴대법원에서 일본의 전범기업 《신일본제철》에 손해배상금을 지불할데 대한 판결을 내린데 대해 일본것들이 보복조치를 취해나섰기 때문이었다.

당시 일본당국자들은 경제산업성을 내세워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남조선에 대한 주요제품수출금지조치를 취하고 남조선을 《수출우대국》 명단에 제외하였으며 이후 피퇴법정의 사과와 배상판결의 철폐가 있기 전에는 쌍방관계를 정상화할수 없다는 강도적인 요구를 들어대면서 지금껏 피퇴들을 뺱뺱하게 대해왔다.

이로 하여 일제강제징용피해자배상문제는 피퇴들과 일본사이에 서로 양보하기 어려운 난문제로 되였으며 남조선의 이젠 집권자도 피퇴대법원이 내린 판결까지 뒤집으면서 일본의 요구를 감히 받아들이수 없었다.

그러나 구악보수분자 아베노는 일본수상으로 취임하면 일본군성노예문제, 과거사문제, 독도문제 등에서 피퇴들에 대해 고압적인 강경일변도립장을 취해온것으로 하여 피퇴들과 일본과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면서 쌍방사이에 해마다 서로 오가면서 벌리던 《수뇌왕복외교》 놀음도 단절되었다.

피퇴들과 일본사이의 관계가 보다 악화되려는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수백만의 조선청년들을 일본에 강제로 끌고가 노예로동을 강요한 일본의 죄행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남조선 각계층의 즐기하고도 일강한 투쟁으로 2018년 10월 피퇴대법원에서 일본의 전범기업 《신일본제철》에 손해배상금을 지불할데 대한 판결을 내린데 대해 일본것들이 보복조치를 취해나섰기 때문이었다.

당시 일본당국자들은 경제산업성을 내세워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남조선에 대한 주요제품수출금지조치를 취하고 남조선을 《수출우대국》 명단에 제외하였으며 이후 피퇴법정의 사과와 배상판결의 철폐가 있기 전에는 쌍방관계를 정상화할수 없다는 강도적인 요구를 들어대면서 지금껏 피퇴들을 뺱뺱하게 대해왔다.

이로 하여 일제강제징용피해자배상문제는 피퇴들과 일본사이에 서로 양보하기 어려운 난문제로 되였으며 남조선의 이젠 집권자도 피퇴대법원이 내린 판결까지 뒤집으면서 일본의 요구를 감히 받아들이수 없었다.

그러나 구악보수분자 아베노는 일본수상으로 취임하면 일본군성노예문제, 과거사문제, 독도문제 등에서 피퇴들에 대해 고압적인 강경일변도립장을 취해온것으로 하여 피퇴들과 일본과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면서 쌍방사이에 해마다 서로 오가면서 벌리던 《수뇌왕복외교》 놀음도 단절되었다.

피퇴들과 일본사이의 관계가 보다 악화되려는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수백만의 조선청년들을 일본에 강제로 끌고가 노예로동을 강요한 일본의 죄행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남조선 각계층의 즐기하고도 일강한 투쟁으로 2018년 10월 피퇴대법원에서 일본의 전범기업 《신일본제철》에 손해배상금을 지불할데 대한 판결을 내린데 대해 일본것들이 보복조치를 취해나섰기 때문이었다.

당시 일본당국자들은 경제산업성을 내세워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남조선에 대한 주요제품수출금지조치를 취하고 남조선을 《수출우대국》 명단에 제외하였으며 이후 피퇴법정의 사과와 배상판결의 철폐가 있기 전에는 쌍방관계를 정상화할수 없다는 강도적인 요구를 들어대면서 지금껏 피퇴들을 뺱뺱하게 대해왔다.

이로 하여 일제강제징용피해자배상문제는 피퇴들과 일본사이에 서로 양보하기 어려운 난문제로 되였으며 남조선의 이젠 집권자도 피퇴대법원이 내린 판결까지 뒤집으면서 일본의 요구를 감히 받아들이수 없었다.

그러나 구악보수분자 아베노는 일본수상으로 취임하면 일본군성노예문제, 과거사문제, 독도문제 등에서 피퇴들에 대해 고압적인 강경일변도립장을 취해온것으로 하여 피퇴들과 일본과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면서 쌍방사이에 해마다 서로 오가면서 벌리던 《수뇌왕복외교》 놀음도 단절되었다.

피퇴들과 일본사이의 관계가 보다 악화되려는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수백만의 조선청년들을 일본에 강제로 끌고가 노예로동을 강요한 일본의 죄행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남조선 각계층의 즐기하고도 일강한 투쟁으로 2018년 10월 피퇴대법원에서 일본의 전범기업 《신일본제철》에 손해배상금을 지불할데 대한 판결을 내린데 대해 일본것들이 보복조치를 취해나섰기 때문이었다.

당시 일본당국자들은 경제산업성을 내세워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남조선에 대한 주요제품수출금지조치를 취하고 남조선을 《수출우대국》 명단에 제외하였으며 이후 피퇴법정의 사과와 배상판결의 철폐가 있기 전에는 쌍방관계를 정상화할수 없다는 강도적인 요구를 들어대면서 지금껏 피퇴들을 뺱뺱하게 대해왔다.

이로 하여 일제강제징용피해자배상문제는 피퇴들과 일본사이에 서로 양보하기 어려운 난문제로 되였으며 남조선의 이젠 집권자도 피퇴대법원이 내린 판결까지 뒤집으면서 일본의 요구를 감히 받아들이수 없었다.

그러나 구악보수분자 아베노는 일본수상으로 취임하면 일본군성노예문제, 과거사문제, 독도문제 등에서 피퇴들에 대해 고압적인 강경일변도립장을 취해온것으로 하여 피퇴들과 일본과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면서 쌍방사이에 해마다 서로 오가면서 벌리던 《수뇌왕복외교》 놀음도 단절되었다.

피퇴들과 일본사이의 관계가 보다 악화되려는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수백만의 조선청년들을 일본에 강제로 끌고가 노예로동을 강요한 일본의 죄행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남조선 각계층의 즐기하고도 일강한 투쟁으로 2018년 10월 피퇴대법원에서 일본의 전범기업 《신일본제철》에 손해배상금을 지불할데 대한 판결을 내린데 대해 일본것들이 보복조치를 취해나섰기 때문이었다.

당시 일본당국자들은 경제산업성을 내세워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남조선에 대한 주요제품수출금지조치를 취하고 남조선을 《수출우대국》 명단에 제외하였으며 이후 피퇴법정의 사과와 배상판결의 철폐가 있기 전에는 쌍방관계를 정상화할수 없다는 강도적인 요구를 들어대면서 지금껏 피퇴들을 뺱뺱하게 대해왔다.

이로 하여 일제강제징용피해자배상문제는 피퇴들과 일본사이에 서로 양보하기 어려운 난문제로 되였으며 남조선의 이젠 집권자도 피퇴대법원이 내린 판결까지 뒤집으면서 일본의 요구를 감히 받아들이수 없었다.

그러나 구악보수분자 아베노는 일본수상으로 취임하면 일본군성노예문제, 과거사문제, 독도문제 등에서 피퇴들에 대해 고압적인 강경일변도립장을 취해온것으로 하여 피퇴들과 일본과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면서 쌍방사이에 해마다 서로 오가면서 벌리던 《수뇌왕복외교》 놀음도 단절되었다.

피퇴들과 일본사이의 관계가 보다 악화되려는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수백만의 조선청년들을 일본에 강제로 끌고가 노예로동을 강요한 일본의 죄행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남조선 각계층의 즐기하고도 일강한 투쟁으로 2018년 10월 피퇴대법원에서 일본의 전범기업 《신일본제철》에 손해배상금을 지불할데 대한 판결을 내린데 대해 일본것들이 보복조치를 취해나섰기 때문이었다.

당시 일본당국자들은 경제산업성을 내세워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남조선에 대한 주요제품수출금지조치를 취하고 남조선을 《수출우대국》 명단에 제외하였으며 이후 피퇴법정의 사과와 배상판결의 철폐가 있기 전에는 쌍방관계를 정상화할수 없다는 강도적인 요구를 들어대면서 지금껏 피퇴들을 뺱뺱하게 대해왔다.

이로 하여 일제강제징용피해자배상문제는 피퇴들과 일본사이에 서로 양보하기 어려운 난문제로 되였으며 남조선의 이젠 집권자도 피퇴대법원이 내린 판결까지 뒤집으면서 일본의 요구를 감히 받아들이수 없었다.

그러나 구악보수분자 아베노는 일본수상으로 취임하면 일본군성노예문제, 과거사문제, 독도문제 등에서 피퇴들에 대해 고압적인 강경일변도립장을 취해온것으로 하여 피퇴들과 일본과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면서 쌍방사이에 해마다 서로 오가면서 벌리던 《수뇌왕복외교》 놀음도 단절되었다.

피퇴들과 일본사이의 관계가 보다 악화되려는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수백만의 조선청년들을 일본에 강제로 끌고가 노예로동을 강요한 일본의 죄행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남조선 각계층의 즐기하고도 일강한 투쟁으로 2018년 10월 피퇴대법원에서 일본의 전범기업 《신일본제철》에 손해배상금을 지불할데 대한 판결을 내린데 대해 일본것들이 보복조치를 취해나섰기 때문이었다.

당시 일본당국자들은 경제산업성을 내세워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남조선에 대한 주요제품수출금지조치를 취하고 남조선을 《수출우대국》 명단에 제외하였으며 이후 피퇴법정의 사과와 배상판결의 철폐가 있기 전에는 쌍방관계를 정상화할수 없다는 강도적인 요구를 들어대면서 지금껏 피퇴들을 뺱뺱하게 대해왔다.

이로 하여 일제강제징용피해자배상문제는 피퇴들과 일본사이에 서로 양보하기 어려운 난문제로 되였으며 남조선의 이젠 집권자도 피퇴대법원이 내린 판결까지 뒤집으면서 일본의 요구를 감히 받아들이수 없었다.

그러나 구악보수분자 아베노는 일본수상으로 취임하면 일본군성노예문제, 과거사문제, 독도문제 등에서 피퇴들에 대해 고압적인 강경일변도립장을 취해온것으로 하여 피퇴들과 일본과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면서 쌍방사이에 해마다 서로 오가면서 벌리던 《수뇌왕복외교》 놀음도 단절되었다.

피퇴들과 일본사이의 관계가 보다 악화되려는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수백만의 조선청년들을 일본에 강제로 끌고가 노예로동을 강요한 일본의 죄행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남조선 각계층의 즐기하고도 일강한 투쟁으로 2018년 10월 피퇴대법원에서 일본의 전범기업 《신일본제철》에 손해배상금을 지불할데 대한 판결을 내린데 대해 일본것들이 보복조치를 취해나섰기 때문이었다.

당시 일본당국자들은 경제산업성을 내세워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남조선에 대한 주요제품수출금지조치를 취하고 남조선을 《수출우대국》 명단에 제외하였으며 이후 피퇴법정의 사과와 배상판결의 철폐가 있기 전에는 쌍방관계를 정상화할수 없다는 강도적인 요구를 들어대면서 지금껏 피퇴들을 뺱뺱하게 대해왔다.

이로 하여 일제강제징용피해자배상문제는 피퇴들과 일본사이에 서로 양보하기 어려운 난문제로 되였으며 남조선의 이젠 집권자도 피퇴대법원이 내린 판결까지 뒤집으면서 일본의 요구를 감히 받아들이수 없었다.

그러나 구악보수분자 아베노는 일본수상으로 취임하면 일본군성노예문제, 과거사문제, 독도문제 등에서 피퇴들에 대해 고압적인 강경일변도립장을 취해온것으로 하여 피퇴들과 일본과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면서 쌍방사이에 해마다 서로 오가면서 벌리던 《수뇌왕복외교》 놀음도 단절되었다.

피퇴들과 일본사이의 관계가 보다 악화되려는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수백만의 조선청년들을 일본에 강제로 끌고가 노예로동을 강요한 일본의 죄행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남조선 각계층의 즐기하고도 일강한 투쟁으로 2018년 10월 피퇴대법원에서 일본의 전범기업 《신일본제철》에 손해배상금을 지불할데 대한 판결을 내린데 대해 일본것들이 보복조치를 취해나섰기 때문이었다.

당시 일본당국자들은 경제산업성을 내세워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남조선에 대한 주요제품수출금지조치를 취하고 남조선을 《수출우대국》 명단에 제외하였으며 이후 피퇴법정의 사과와 배상판결의 철폐가 있기 전에는 쌍방관계를 정상화할수 없다는 강도적인 요구를 들어대면서 지금껏 피퇴들을 뺱뺱하게 대해왔다.

이로 하여 일제강제징용피해자배상문제는 피퇴들과 일본사이에 서로 양보하기 어려운 난문제로 되였으며 남조선의 이젠 집권자도 피퇴대법원이 내린 판결까지 뒤집으면서 일본의 요구를 감히 받아들이수 없었다.

그러나 구악보수분자 아베노는 일본수상으로 취임하면 일본군성노예문제, 과거사문제, 독도문제 등에서 피퇴들에 대해 고압적인 강경일변도립장을 취해온것으로 하여 피퇴들과 일본과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면서 쌍방사이에 해마다 서로 오가면서 벌리던 《수뇌왕복외교》 놀음도 단절되었다.

피퇴들과 일본사이의 관계가 보다 악화되려는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수백만의 조선청년들을 일본에 강제로 끌고가 노예로동을 강요한 일본의 죄행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남조선 각계층의 즐기하고도 일강한 투쟁으로 2018년 10월 피퇴대법원에서 일본의 전범기업 《신일본제철》에 손해배상금을 지불할데 대한 판결을 내린데 대해 일본것들이 보복조치를 취해나섰기 때문이었다.

당시 일본당국자들은 경제산업성을 내세워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남조선에 대한 주요제품수출금지조치를 취하고 남조선을 《수출우대국》 명단에 제외하였으며 이후 피퇴법정의 사과와 배상판결의 철폐가 있기 전에는 쌍방관계를 정상화할수 없다는 강도적인 요구를 들어대면서 지금껏 피퇴들을 뺱뺱하게 대해왔다.

이로 하여 일제강제징용피해자배상문제는 피퇴들과 일본사이에 서로 양보하기 어려운 난문제로 되였으며 남조선의 이젠 집권자도 피퇴대법원이 내린 판결까지 뒤집으면서 일본의 요구를 감히 받아들이수 없었다.

그러나 구악보수분자 아베노는 일본수상으로 취임하면 일본군성노예문제, 과거사문제, 독도문제 등에서 피퇴들에 대해 고압적인 강경일변도립장을 취해온것으로 하여 피퇴들과 일본과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면서 쌍방사이에 해마다 서로 오가면서 벌리던 《수뇌왕복외교》 놀음도 단절되었다.

피퇴들과 일본사이의 관계가 보다 악화되려는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수백만의 조선청년들을 일본에 강제로 끌고가 노예로동을 강요한 일본의 죄행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남조선 각계층의 즐기하고도 일강한 투쟁으로 2018년 10월 피퇴대법원에서 일본의 전범기업 《신일본제철》에 손해배상금을 지불할데 대한 판결을 내린데 대해 일본것들이 보복조치를 취해나섰기 때문이었다.

당시 일본당국자들은 경제산업성을 내세워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남조선에 대한 주요제품수출금지조치를 취하고 남조선을 《수출우대국》 명단에 제외하였으며 이후 피퇴법정의 사과와 배상판결의 철폐가 있기 전에는 쌍방관계를 정상화할수 없다는 강도적인 요구를 들어대면서 지금껏 피퇴들을 뺱뺱하게 대해왔다.

이로 하여 일제강제징용피해자배상문제는 피퇴들과 일본사이에 서로 양보하기 어려운 난문제로 되였으며 남조선의 이젠 집권자도 피퇴대법원이 내린 판결까지 뒤집으면서 일본의 요구를 감히 받아들이수 없었다.

그러나 구악보수분자 아베노는 일본수상으로 취임하면 일본군성노예문제, 과거사문제, 독도문제 등에서 피퇴들에 대해 고압적인 강경일변도립장을 취

을사년의 망국을 불러오는 친일사대 매국노

얼마전 윤석열역도가 일본수상 기시다를 남조선에 끌어들여 회담을 벌였다.

역도는 심나라스피와의 여러 회담에서 그 무슨 《핵 및 미사일위협》을 운운하며 미일남조선 《3각공조》와 남조선일본관계발견 등에 대해 모의하였다.

한마디로 이번 회담은 철두철미 공화국을 겨냥한 미일남조선 《3각공조》의 조속한 완성 및 북침전쟁도발에 대한 대결의 완이요로 친일사대매국노의 주악한 본색을 만천하에 드러낸 망국회담이었다.

천년속적 《국빈》으로 환대하며 요란한 영접행사로부터 단속 및 확대회담, 공동기자회견, 친교만찬 등을 벌여놓은 역도의 행태는 과거 조선총독을 섬기는 식민지주주의 몰골 그대로였다.

회담시작전부터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협력을 한발자국도 내디딜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과거사문제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더두려워 늘어놓으며 일제의 과거죄악

을 백지화하고 침략인사로 강제징용피해자들을 우롱하는 기사다에게 감사하다며 머리를 조아린 역도의 역겨운 추태는 을사오적도 무색케 하였다.

후쿠시마핵오염수방류와 관련한 현지차탈단과전합으로 일본의 후안무치한 핵오염수방류에 명분을 제공해주는가 하면 미국주도의 협력공조가 남조선일본간의 공동이익을 위한것이라며 미국의 인디태평양양전락실현의 돌격대로 나서고 공화국의 《핵위협》에 대응한다는 미명하에 늑대리 배이와 함께 고안해낸 대조선전대시정책의 산물인 《위상론선언》의 모략실현에 일본까지 끌어들일 범죄적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놓았다.

《핵협의그루뎀》설립과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의 조선반도전개, 합동군사연습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위상론선언》은 철두철미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옹호하며 위협하는 《핵대결각본》으로서 공화국에 대한 로골적인 핵전쟁선전포고나 다름이 없다.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를 지배하고 나아가 전 세계를 다스렸던 것은 미국의 변함없는 대외침략정책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핵전략자산들을 비롯한 수많은 북침전쟁장비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고 침략전쟁연습에 광분하고있으며 미일남조선 《3각공조》를 구축하여 주주들을 저들의 인디태평양양전락실현의 돌격대로 세웠고 책동하고있다.

한편 전법국인 일본반동들은 패전의 양각음을 하고 《대동아공영권》의 껌꿈을 거이어이루려는 야망밑에 미국의 대조선전대시정책에 적극 편승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대굴종과 동족대결이 체질화된 윤석열역도는 우리 민족에게 해이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이치는 친연적책과 임을 맞추며 《북의 핵 및 미사일개발은 조선반도와 일본에 중대한 위협이다. 쌍방협력과 공동안은 반드시 필요하다. 북핵대응을 위한 미일남조선3자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강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떠벌이며 침략적인 미

국남조선 《핵협의그루뎀》에 일본을 끌어들여라고 공공연히 획책하였다.

결국 역도는 지난 70여년간 이 땅에 얼룩진 사대매국사의 죄악보다 더 엄청난 죄악을 단 1박2일만에 덧씌워놓았다.

한세기이상에 걸쳐 쌓이고 맺힌 친추의 한을 풀고 친백배의 대가를 받아내도 모자랄 왜나라 경발이들에게 이 땅을 통째로 넘겨바치려는 역도의 존재자체가 민족의 수치이고 력사의 비극이다.

지금 해외여론은 이번 회담을 두고 《역사를 팔아먹은 죄악의 《대통령》》, 《역사의곡과 책임정책에 적극 편승해왔다.》 부정으로 일관하는 기시다정권에 게 거둬 면허부를 준 회대의 굴종외교》, 《내부의 격렬한 반일계 거둬 면허부를 준 회대의 굴종외교》, 《내부의 격렬한 반일계 거둬 면허부를 준 회대의 굴종외교》, 《내부의 격렬한 반일계 거둬 면허부를 준 회대의 굴종외교》》 등으로 저주와 규탄을 퍼뜨리고있다.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헌대》, 《2015 《한

일합의파기》를 위한 대학생공동행동》, 《조분술사전환행동》을 비롯한 남조선 각계층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시다의 서울행각을 계기로 반일, 반윤석열투쟁에 떨쳐나서고있다.

하다면 윤석열역도가 민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굴종과 치욕만을 들이치기 위한 기시다의 이번 서울행각을 그리고 고대해나선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었다.

윤석열역도와 기시다의 이번 회담은 철두철미 미국상전의 치밀한 각본에 따른것이다.

이미전부터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군사적패권을 차지하려는 기도밑에 미일남조선 《3각공조》 《핵협의그루뎀》을 미일남조선 《3각협정의그루뎀》으로 확대하는 문제까지 거론해왔다.

나토의 《핵공유》보다 더 강력하다는 미국남조선 《핵협의그루뎀》에 일본까지 포함시켜 《3각협정의그루뎀》로 확대하려는 것은 《3각공조》에 핵전쟁 《동맹》, 나토보다 더 호전적인 아시아안 나토임을 예고해주고있다.

제반 사실들은 이번 회담이 미

그 대가로 4월하순에는 워싱턴에 불러들여 《확장억제력》 강화 약속을 《워싱턴선언》으로 요란하게 포장하여 안겨주었다.

상전의 지시에 따라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 두 주주는 공화국의 핵미사일 《도발》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긴밀한 쌍방협력과 미국과의 《3각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며 곧 진행될 주요7개국수뇌자회의를 계기로 《3자수뇌회담》 개최가 중요하다고 력설했었으며 나중에는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3자수뇌회담》에서 합의한 《북미사이정보정보의 실시간공유체계 구축》을 보다 심화시키며 《위상론선언》에 명시된 미국남조선 《핵협의그루뎀》을 미일남조선 《3각협정의그루뎀》으로 확대하는 문제까지 거론해왔다.

나토의 《핵공유》보다 더 강력하다는 미국남조선 《핵협의그루뎀》에 일본까지 포함시켜 《3각협정의그루뎀》로 확대하려는 것은 《3각공조》에 핵전쟁 《동맹》, 나토보다 더 호전적인 아시아안 나토임을 예고해주고있다.

제반 사실들은 이번 회담이 미

일남조선사이의 군사적협력관계를 《군사동맹》, 《핵동맹》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미국의 치밀한 흉계에 따라 언출된 두 주주의 범죄적야합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실증해주고있다.

현실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장본인, 침략의 원흉은 바로 미국이며 침에 한 사태를 더욱 격화시키는 추악한 공범들은 일본과 윤석열적매당이라는것을 다시금 명백히 릉증해주고있다.

최악의 통치위기에 빠진 제놈의 더러운 잔명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상전과 친연속적 일본에 아무 굴종하며 남조선에 치욕과 굴종의 굴레를 덧씌워놓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정세를 수습할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윤석열역도야말로 제2의 을사년의 망국을 불러오는 독재사대매국노, 민족의 재앙거리이다.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에 역행하여 전정쟁을 때려 동족대결을 고취하는 윤석열역도는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배영일



남조선호전광들이 반공화국침략전쟁에 들떠 분별없이 날뛰고있다.

얼마전 특근참모총장을 비롯한 군부호전광들이 미국과의 대규모합동공중훈련인 《코리아 플라잉 트레이닝》(《조선반도비행훈련》)을 끝내기 바쁘게 남조선검정 미 제정락군 우두머리들과 함께 백령도에 위치한 전방부대와 평택미군기지를 돌아다니다 공화국을 표적으로 한 그 무슨 《대비계회》과 작전수행태세를 점검하고 부대장병들을 격려하는 놀음을 벌였다.

한편 남조선일본 《안보실장 회담》이니, 남조선미국 《국방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이니 하는것을 벌여놓은 때 이어 6월 2일에는 남조선일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할 움직임을 보이고 5월 31일부터 미국, 일본등이 참가하는 《대양상상무기전과 방지구상》을 위한 다국적연합해상차단훈련 《이스턴 테버》(《동방의 시도》)를

실시한다는것을 발표하는 등 미일남조선 《3각군사공조》 강화에 구성을 부리고 있다.

또한 오는 16일부터 민방위훈련을 6년만에 재개하고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미국과 함께 역대 최대규모의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을 5차에 걸쳐 실시한다는것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군

수 없는 초강력, 절대적힘을 지닌 세계적인 핵강국, 초대강국이다. 공화국의 이 지위와 힘은 시간의 흐름에 정비례하여 더욱 높아지고 강력해지고있다.

이런 공화국과 맞서보려는 것이야말로 어리석고 가스르를 탕동이다.

집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는 법이다.

남조선 호전광들의 반공화국대결광기는 공화국의 초강력대응태세로 인한 극도의 패배감과 려세감을 가리우고 저들내부에 확산되는 《안보불안》을 눈감아보려는 단발마적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엄연한 현실과 대세의 흐름도 가늠하지 못하고 경기동행하는것으로 언술을 침담한 책임밖에 없다. 뒤일을 감당할 대청도 능력도 없는 주제가 가스르케 반공화국대결에 광분하듯있는 윤석열역적매당이 바로 그러한 자멸적인 운명의 길을 가고있다.

본사기자 박철남

최근 남조선에서 윤석열역도의 미국행각이 대내통치위기의 심화로 이어지고있다.

우선 《국가안보실》과 《행정부》의 교안보부서들이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윤석열역도가 미국을 행각하기 전에 《국가안보실》을 문제삼아 전실장을 내쫓고 1차장이 행각일정을 전부 다시 짜게 했었던것을 행각을 보좌하는 데서 완전히 배제되었던 것은 지금 《국가안보실》과 《외교부》사이의 마찰도 번져지고있다.

그런가 하면 《국방부》것들은 《국가안보실》이 공개된 핵미사일과 《핵공유》를 실현한 듯이 과장하여 발표하였는 그대로 믿고 영무세처럼 외위대다가 미국상전이 이를 공식 부인하자 당장 당하게 되었으며 그 벨풍으로 어떻게 《국가안보실》사안을 《국방부》와 톤의도 하지

않고 발표하는가고 《국가안보실》에 항의하는 놀음을 벌이고있다.

한편 역도가 이번 미국행각에서 달성하려던 적지 않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앞으로의 정책추진도 어렵게 되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윤석열역도는 이번 미국행각에 나서기 전부터 《북의 핵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나토식핵공유》 이상의 《확장억제력》을 제공받겠다는 내부의 련락자들 《인플레감축법》 문제를 해결하여 해외진출기업들의 에로를 해소하겠다는 한편 천 소리를 높이고있다.

그러나 정작 미국에 가서 《핵협의그루뎀》설립이라는 《빈껍데기선언》으로 오히려 핵전과방지의 《족쇄》에 발목을 단단히 묶어놓는다면 《반도체 및 과학법》과 《인플레감축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미국에 추가로 수십억US\$를 투자해야 하는 짐만 더 걸려지고 돌아왔다.

이로 하여 윤석열역도의 미국행각은 결과물이 별로 없었던 한갓 허세만 부러낸 《빈손행각》으로 되었으며 민심의 지지를 얻어 정책추진동력을 살려보려던 역도의 기도는 물거품이 되었다.

이에 대해 야당들은 역도가 역대 최대규모의 경제사찰전까지 미국에 갔지만 《인플레감축법》 규제완화를 비롯한 경제문제에서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미국 의 불법도청의혹에 대해서도 사과를 받아내지않는것을 황당무계한 릉장발표로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남기고 있다고 하면서 이번 《국민

섞지고 불속에 뛰어들려는 호전광들

부. 《국회》의 주요인물들과 미군과 언론사 및 군수업체 관계자 300여명이 훈련을 참관하게 된다는니 하며 전쟁열을 고취하고있다.

조선반도정세를 통제불능의 극단상황에 몰아가는 대결망동이 아닐수 없다.

다 아는것처럼 오늘 조선반도정세는 미국과 남조선 호전광들의 날로 로골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제 대양상상무기전과 방지구상》을 위한 다국적연합해상차단훈련 《이스턴 테버》(《동방의 시도》)를

실시한다는것을 발표하는 등 미일남조선 《3각군사공조》 강화에 구성을 부리고 있다.

또한 오는 16일부터 민방위훈련을 6년만에 재개하고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미국과 함께 역대 최대규모의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을 5차에 걸쳐 실시한다는것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군

수 없는 초강력, 절대적힘을 지닌 세계적인 핵강국, 초대강국이다. 공화국의 이 지위와 힘은 시간의 흐름에 정비례하여 더욱 높아지고 강력해지고있다.

이런 공화국과 맞서보려는 것이야말로 어리석고 가스르를 탕동이다.

집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는 법이다.

남조선 호전광들의 반공화국대결광기는 공화국의 초강력대응태세로 인한 극도의 패배감과 려세감을 가리우고 저들내부에 확산되는 《안보불안》을 눈감아보려는 단발마적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엄연한 현실과 대세의 흐름도 가늠하지 못하고 경기동행하는것으로 언술을 침담한 책임밖에 없다. 뒤일을 감당할 대청도 능력도 없는 주제가 가스르케 반공화국대결에 광분하듯있는 윤석열역적매당이 바로 그러한 자멸적인 운명의 길을 가고있다.

본사기자 박철남

지역정세를 더욱 긴장시키는 징세악화의 장본인이라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북침전쟁도발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지만 그것은 화약을 지고 불속에 뛰어들어 가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망동이다.

오늘의 조선반도환경은 조선전쟁이 일어났던 지난 세기 50년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공화국은 그 누구도 넘볼

한 극도의 패배감과 려세감을 가리우고 저들내부에 확산되는 《안보불안》을 눈감아보려는 단발마적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엄연한 현실과 대세의 흐름도 가늠하지 못하고 경기동행하는것으로 언술을 침담한 책임밖에 없다. 뒤일을 감당할 대청도 능력도 없는 주제가 가스르케 반공화국대결에 광분하듯있는 윤석열역적매당이 바로 그러한 자멸적인 운명의 길을 가고있다.

본사기자 박철남

정녕 역적매당이 떠드는 남조선미국 《동맹》의 70년사야말로 미국에 의한 치욕과 굴종, 침략과 약탈, 살륙으로 얼룩진 범죄의 력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역적매당은 이러한 범죄사를 《기념》이니 뉘니 하며 미화 분석하면서 침략자, 낭당들에게 고맙다고 머리를 조아리고있는것이다.

엄연한 현실을 건너 미국상전을 찾아가 온갖 비굴한 추태를 부리며 남조선을 미국의 최후의 식민지로, 북침핵전쟁의 전초기지로 내밀기는 망동을 부린것으로도 모자라 지금은 남조선전체를 친 이땅대관으로 만들어놓고있으니 윤석열역적매당이야말로 친 추에 용납 못할 만교역적무리들이다.

《미군없는 땅, 미국없는 세상》을 바라보는 남조선인심 《윤석열퇴진》, 《윤석열실심판》의 구호를 함께 들고 반윤석열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것은 너무나도 응답하다.

고충국

고 저들의 각종 부정부패행위가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회》의 과반수의석을 차지하고 독재정치를 보다 원만히 실현해보려는 저들의 기도도 실현할수 없기때문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것들은 윤석열역도와 그 사당인 《국민의 힘》을 부정부패의 왕초로 몰아 정치적으로 매장해버림으로써 다음 《국회의원선거》에서 저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보려는데로부터 《특별감사제》 도입을 완강하게 주장하고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추악한 정치적야욕실현에 만지적몰아가는것이 남조선 정치권이다.

남조선 각계층이 당국자들은 물론 여야정치인들을 《위정자》, 《시정배》, 《정치권씨배》들로 단죄하며 침을 뱉고 등을 돌려대고있는것은 너무나도 응답하다.

그것은 더러운 야심가들, 정치동물들에 대해서는 지켜볼것도, 기대할것도 없기때문이다.

본사기자 박진홍

남조선을 친미광대판으로 만들어놓는 쓸개 빠진 망둥

최근 윤석열역적매당이 남조선미국 《동맹》의 70년을 더욱 미화분석해보려고 발광하고있다.

역적매당이 그 무슨 남조선미국 《동맹》 70주년 《기념행사》들을 연이어 벌이고있는 것이 그 대표적징표이다.

이 해례된 광대판들에서 역적매당은 미국과의 《동맹 강화》 방안을 론의한다. 남조선미국 《의원련맹》 결성준비를 다그친다. 《확장억제력》 제공과 경제안보협력방안 등을 론의한다 어쨌든 하며 역적매당의 놀음이 벌어졌다.

미국에 명줄을 걸고있는 친미노복들의 추악한 사대매국적주태가 아닐수 없다.

도대체 남조선미국 《동맹》이 남조선인민들에게 가져다 줄것이란 무엇인가.

불행과 고통, 재앙밖에 없다. 언젠가 남조선의 한 대학교수가 《남조선은 미합중국에 예속된 무주권지이다. 다시말하여 남조선은 미국에 장악된 식민지이다.》라고 폭로한바 있다. 실제로 남조선에서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를 좌우하고있는것은 미국이다. 미국과 남조선과의 관계는 철두철미 상전과 노예의 관계이다.

외세에 유린당한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자주적권리와 삶을 론한다는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다.

말 그대로 외세에 자주권을 빼앗기고 인권을 무참히 유린당하는 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의 력사, 피와 눈물의 력사이다.

미제야수들은 남조선인민들을 한갓 노예로, 사냥감으로,

노리개로, 《식민지력등인》으로, 지어 들러주 여기면서 무고한 사람들을 때일이 죽이고 녀성들을 백수에 마음대로 겁탈하는 등 치명리는 만행들을 끊임없이 감행해왔다.

1948년 제주도인민들에 대한 야수적인 학살만행, 나물케는 소년을 핏자국으로, 소녀를 핏자국으로 인 군산소녀총격사건, 구두당 이소녀를 칼로 찌르고 상자에 넣어 직승기로 실어다 내던져 죽인 부평소녀진승기폭격사건, 뽕나무를 쪼는 농민을 노루라고 하면서 쏘아죽인 파주 나무군사살사건, 죽국의 인간중으로서상과 변태가 빛어낸 동두천연인살사건, 세인을 장갑차로 두 녀중학생을 깔아죽인 사건을 비롯하여 미제가 남조선에서 저지른 만행들은

이루다 헤아릴수 없다.

1980년 5월 전두환군사장관무리들을 내몰아 광주민봉기참가자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고 도시를 불속에 뛰어들어 가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망동이다.

이뿐이 아니다.

미국은 남조선을 경제적으로 저들에게 철저히 예속시키고 식민지적략탈을 강화하는 것으로 살해했다. 또한 남조선을 반공화국일탈과 세계제패야망실현을 위한 핵전초기지, 핵약약으로 전락시켰으며 북침핵전쟁책동을 그치지 않고 광범적으로 벌이며 조선반도에 항시적인 핵전쟁위험을 관의 구조를 함께 들고 반윤석열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것은 너무나도 응답하다.

고충국

정치동물들의 어지러운 란투극

남조선 《국회》에는 파라다니는 오명도 많다.

《식물국회》, 《동물국회》, 《망나니국회》, 《빈손국회》, 《메스렁국회》, 《날치기국회》, 《란장관국회》, 《방탄국회》... 정치와 민생을 론한다는 마당에서 정치인으로 자처하는 자들이 얼마나 불쌍사남게 놀아냈으면 가지가지의 오명들이 이처럼 닥치다지 불어다니겠는가.

요즘 《특별감사제》 도입을 놓고도 또 한차례의 《동물국회》가 펼쳐졌다.

윤석열역도의 녀편년 김건희의 문물표절, 추가작조를 비롯하여 역적매당이 릉투런 각종 부정부패사건들이 권력의 비호밑에 아무런 법적처벌도 받지 않았는데 대한 불만으로 야당들은 《특별감사제》를 도입하여 적극 수사할데 대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를 기회로 항상 개와 고 양이처럼 으르렁대던 여야사이에 또다시 란투극이 벌어졌다.

남조선 《국회》에는 파라다니는 오명도 많다.

《식물국회》, 《동물국회》, 《망나니국회》, 《빈손국회》, 《메스렁국회》, 《날치기국회》, 《란장관국회》, 《방탄국회》... 정치와 민생을 론한다는 마당에서 정치인으로 자처하는 자들이 얼마나 불쌍사남게 놀아냈으면 가지가지의 오명들이 이처럼 닥치다지 불어다니겠는가.

요즘 《특별감사제》 도입을 놓고도 또 한차례의 《동물국회》가 펼쳐졌다.

윤석열역도의 녀편년 김건희의 문물표절, 추가작조를 비롯하여 역적매당이 릉투런 각종 부정부패사건들이 권력의 비호밑에 아무런 법적처벌도 받지 않았는데 대한 불만으로 야당들은 《특별감사제》를 도입하여 적극 수사할데 대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를 기회로 항상 개와 고 양이처럼 으르렁대던 여야사이에 또다시 란투극이 벌어졌다.

정치동물들의 어지러운 란투극

고 저들의 각종 부정부패행위가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회》의 과반수의석을 차지하고 독재정치를 보다 원만히 실현해보려는 저들의 기도도 실현할수 없기때문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것들은 윤석열역도와 그 사당인 《국민의 힘》을 부정부패의 왕초로 몰아 정치적으로 매장해버림으로써 다음 《국회의원선거》에서 저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보려는데로부터 《특별감사제》 도입을 완강하게 주장하고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추악한 정치적야욕실현에 만지적몰아가는것이 남조선 정치권이다.

남조선 각계층이 당국자들은 물론 여야정치인들을 《위정자》, 《시정배》, 《정치권씨배》들로 단죄하며 침을 뱉고 등을 돌려대고있는것은 너무나도 응답하다.

그것은 더러운 야심가들, 정치동물들에 대해서는 지켜볼것도, 기대할것도 없기때문이다.

본사기자 박진홍

조선미술박물관을 찾아서

중세시기의 김홍도와 김정희

김홍도(1757~1815)는 18~19세기를 대표하는 사실주의 경향의 진보적인 화가인 김홍도의 그림이 전시된 곳으로 우리를 안내하였다.

《김홍도는 도화서 화원으로 있으면서 인물화, 풍경화, 화초화, 동물화, 신선도 그리고 궁전의 단청과 사찰의 벽화, 지형도, 삽화 등 회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수많은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김홍도의 그림은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였을 뿐 아니라 필치가 힘있고 아름답습니다. 그는 도식화된 양반사대부들의 낮은 화풍을 깨뜨리고 사실주의적 풍속화 창작의 길을 개척하였습니다.》

《홍도(洪道)》, 《서당》, 《활쏘기》를 비롯하여 그 종류가 다양하고 풍만한 시정, 자연의 아름다움속에 안기고싶은 풍속을 불러일으키는 매력적인 화풍으로 일관되어있는데 《구룡폭》, 《나루배》, 《홍류동》 등이 그 대표작이라고 한다.



《홍류동》



《씨름》



《춤》

혈분의 자옥을 남긴 지사들

전봉준

자본주의력량의 침략과 봉건통치체제의 약점으로 말미암아 민족적 및 사회적 위기가 극도로 첨예화되자 동학의 집주였던 전봉준은 반침략, 반봉건투쟁을 벌일것을 결심하였다.

의 요구조건을 봉건정부측에 접수시켰으며 그후 전라도 각 고을에 집강소를 설치하여 농민들의 지방자치를 실시하게 하였다.

속담과 뜻

◆ 논자랑 말고 모자랑 하라
농사에서 모를 틈틈이 잘 키우는것이 중요함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

◆ 도토리엔 벌방을 내려다보면서 열린다
벌방농사가 잘되는 해에는 도토리도 많이 열린다는 뜻

◆ 청류정은 모란봉 청류벽우에 있다
이 무정은 원래 고구려 평양성 내성의 서문인 정혜문의 문루였다.

◆ 아름다운 조국강산
청류정
정혜문은 조선봉건왕조시기에 평양성을 대대적으로 수축하면서 18세기에 고쳐 세웠다.



본사기자

사화

등산놀이 (6)

글 리성덕, 그림 채대성

여기서 무수사람들은 마중나온 자식들과 친척, 이웃들을 맞이하였다.
이렇게 자식, 친척들과 이웃들이 먼 등산길을 다녀오는 늙은이들과 부모들의 건강안부를 염려하여 간단한 음식을 차려놓고 손자, 손녀들까지 데리고 남문까지 와서 마중하는것을 《들이마중》이라 하고 화담계곡에 있는 서사정(중세철학자 서경덕이 학문을 닦던 정각)까지 와서 마중하는것을 《내마중》이라고 한다.

아 먼지오른 짙신과 행전을 벗어떨면서 누구에게라 없이 말하였다.
《머칠간 등산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단련하였으니 배일 부러는 힘을 부쩍 내어 한바탕 일을 해제껴보자!》

다그려.
《아무렴, 부부막 지키는 마누라보다야 낫겠지.》
《그런 말마시우. 나두 북성귀 다니오고나니 아나네라 제정 부부막 지킬줄만 알아서는 안되구 제 고향산천이 귀하구 이우간에 오가는 길과 마음이 더 귀하다는걸 알았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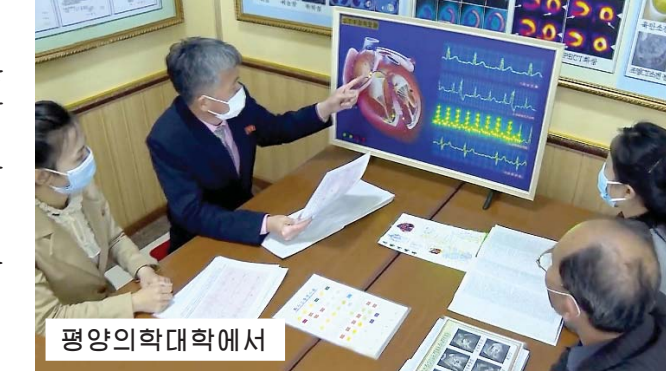
교육내용과 방법을 부단히 개선하여

공화국의 여러 대학들에서 개발장조형의 인재, 실천형의 인재들을 키워내기 위하여 교육내용과 방법을 부단히 개선해나가고있다.

행될 프로그램작성도전경연을 여러가지 부류로 조직하고 또 대상별특성에 맞게 문제들도 제출하면서 경연조직을 다양하게 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고있다.

평양의학대학에서도 새로운 교육방법들을 적극 탐구 도입하고 학생들의 실천실기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교육사업을 진행해 나가고있다.

아니라 질병치료에 쓰이는 약물들의 쓰임법을 정확히 알게 하기 위한 교수방법, 학생들에게 문제를 제시하고 조별로 토론하여 자제로 분석 처리하는 과정을 통하여 립상실기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활발히 벌리고있다.



평양의학대학에서

건강에 좋은 차제품들을 생산공급한다

공화국의 은정차공급소에서 사람들의 건강증진에 좋은 철관음차와 메밀차, 강병이수염차 등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한편 각종 운동기능을 높여 준다. 또한 방사선피해를 줄이고 리노작용, 항산화작용을 하며 당뇨병, 비만을 방지하고 니코틴을 배출시키는 특이한 작용을 한다.

강병이수염차는 100℃의 끓는 물에 넣어 5분후에 마시는데 한소끔 끓여 마시면 맛이 더욱 좋다.

차를 독특한 맛이 잘 살아나게 만들뿐 아니라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종류의 맛좋은 차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도 활발히 벌리고있다.

청류정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단층무정이다. 청류정의 구조상 특징의 또 다른 하나는 단익공두공을 쓰면서 도 액방과 장어사이를 넓게 잡고 지기에 화반을 끼워 시원한 느낌을 주게 한것이다.

청류정의 구조상 특징의 또 다른 하나는 단익공두공을 쓰면서 도 액방과 장어사이를 넓게 잡고 지기에 화반을 끼워 시원한 느낌을 주게 한것이다.

사람의 체질은 10년에 한번씩 변화를 가져오므로 그에 따르는 건강을 지키는것이 중요하다.

을 걷는 등산을 자주 하여 퇴행성질환을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가벼운 아침달리기, 수영, 자전거타기 등 체중조절을 위한 운동을 주 3회이상 하되 운동하면서 열사병과 이차성질환을 주의하여야 한다.